

제 1 교시

국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목차

[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0] 전체 줄거리
- [1] 2006학년도 9월
- [2] 2014학년도 EBS 인터넷수능 문학A형
- [3] 2014학년도 EBS 인터넷수능 문학B형
- [4] 2013학년도 EBS 고득점N제
- [5] 2014학년도 예비시행 A형
- [6] 2015학년도 EBS N제 A형
- [7] 2018학년도 EBS 기출의 미래 미래편
- [8] 2010년도 EBS 포스 고전문학
- [9] 2022학년도 사관 1차
- [10] 2008학년도 수능
- [11] 2023학년도 EBS 수능특강
- [12] 2022학년도 EBS FINAL 실전모의고사
- [13] 2018학년도 수능
- [14] 2010년도 고2 3월
- [15] 2023학년도 EBS 고난도 시크릿X 봉투모의고사
- [16] 2000학년도 수능
- [17] 2018학년도 EBS FINAL 실전모의고사

네이버 어린이 백과

[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체 줄거리]** 중국 명나라에 유현이라는 이름난 선비가 살았다. 느지막이 아들 유연수를 얻었으나 부인이 일찍 죽고 말았다. 유연수는 아버지의 누이인 두 부인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는데 남달리 총명하고 글재주가 뛰어났을 뿐 아니라 인물 또한 빼어났다.

유연수는 열다섯 살에 과거에 급제하고 어질고 정숙한 사정옥과 혼인을 했다. 그러나 혼인한 지 10년 가까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사씨 부인은 이를 자기 탓으로 여기고 유연수에게 첩을 들이라고 권한다. 결국 유연수는 외모가 빼어난 교채란을 첩으로 들인다.

교채란이 아들을 낳자 유연수와 사씨뿐 아니라 하인들도 모두 축하하며 기뻐했다. 교채란은 아들을 낳은 뒤 유연수의 사랑이 두터워지자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교묘한 말과 행동으로 사씨의 흠을 잡아 유연수에게 이르나 유연수는 그 말을 들은 척하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사씨가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았다. 유연수는 본부인 사씨가 낳은 아들 인아를 교씨가 낳은 아들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다. 그러자 교씨는 시기심에 사로잡혀 점점 더 심하게 사씨를 헐뜯지만 유연수는 그저 웃어넘기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연수의 집에 동청이라는 이가 서사로 들어온다. 동청은 잘생긴 얼굴에 말주변과 글재주가 뛰어났으나 행실이 나쁜 이였다. 교씨는 동청과 손잡고 사씨를 모함하여 내쫓기로 했다.

교씨와 동청은 하녀를 시켜 교씨의 큰아들 장주를 교살하고, 그 죄를 사씨에게 덮어 씌웠다. 결국 사씨는 아들 인아를 남겨둔 채 집에서 쫓겨나고, 교씨는 유연수의 정실 부인이 되었다.

쫓겨난 사씨는 시부모의 묘가 있는 선산 아랫동네에 거처를 정했다. 교씨는 유연수가 행여나 일 년에 한두 번이라도 사씨와 마주칠 것이 걱정이었다. 그래서 동청과 함께 사씨를 그곳에서 몰아낼 음모를 꾸몄다. 사씨는 이를 눈치채고 먼저 그곳을 떠나 유연수의 고모 두 부인이 있는 장사로 향했다.

여행길에 어머니와 단 둘이 사는 임 남자의 도움을 받기도 하며 겨우겨우 장사에 도착하지만, 두 부인은 이미 장사를 떠나고 없었다. 사씨는 절망에 빠져 악양루 강물에 몸을 던져 죽으려 하나 다행히 묘해 스님의 도움으로 동정 호수 군산에 있는 절에 몸을 의탁하고 지내게 된다.

한편 유연수는 동청의 계략으로 살아 돌아온 이가 없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동청은 승상 엄승 덕에 벼슬 자리를 얻어 유연수의 집을 떠나게 된다. 교씨는 값진 재물들을 모두 챙기고 아이들과 하인 대여섯을 데리고 동청을 따라나섰다.

그리고 가는 길에 하녀 설매를 시켜 사씨의 아들 인아를 강물에 버리게 했다. 하지만 설매는 아이를 차마 강물에 던지지 못하고 강가에 뉘어 놓았다.

유연수는 유배지에서 사씨가 옳았음을 알고 지난 일을 후회 하며 지내다가 병이 든다. 그때에 꿈인지 생시인지 동정 호수의 군산에 산다는 할멈이 나타나 마당 한가운데에 물병을 놓고 사라지는데, 다음 날 물병이 놓였던 자리에서 물이 솟았다. 그 물을 마시고 유연수는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한편 동청과 교씨는 백성들의 재물을 긁어 모아 엄 승상에게 뇌물로 바치거나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데 썼다. 이 무렵 황제가 태자를 책봉하는 나라의 큰 경사가 있어 죄인을 풀어 주었는데 그 덕에 유연수도 유배에서 풀려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연수는 높은 벼슬아치의 행차와 마주 친다. 바로 동청이었다. 그리고 하녀 설매를 우연히 만나 그간의 사정을 빠짐없이 알게 되었다.

교씨와 동청 역시 유연수가 유배에서 풀려났다는 사실을 알고 유연수를 잡아서 죽이려 했다. 유연수는 사씨를 찾아 악양으로 갔다. 그곳에서 사씨가 쓴 유서를 발견한 유연수는 슬퍼하며 제문을 쓸 때에 장정 수십 명이 유연수를 잡으러 달려 들었다.

쫓기던 유연수가 죽으려고 강물에 몸을 던지려는 순간 강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마침 묘혜 스님과 사씨가 노래를 하며 배를 저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유연수와 사씨는 다시 만났다.

그때 동청과 교씨가 사씨를 모함할 때 도왔던 냉진이 동청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동청이 일이 많아 집을 자주 비우자 냉진은 교씨와 정을 통하게 된다.

동청의 뒤를 보아 주던 승상 엄승의 몰락을 알게 된 냉진은 나라에 동청의 죄를 고발했고, 이 일로 동청은 사형을 당한다. 그 후 냉진과 교씨는 재물을 챙겨 길을 떠났다가 길에서도적에게 재물을 몽땅 도둑맞고 만다.

한편 황제는 엄승의 모함으로 유배를 당했거나 쫓겨난 신하들을 다시 불러들여 벼슬을 주었다. 유연수 역시 다시 벼슬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씨와 함께 아들 인아의 행방을 찾았으나 도무지 찾을 길이 없었다. 사씨는 대가 끊기면 안 되니 정숙한 여인을 첩으로 들이자고 청하지만 유연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안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사씨는 그동안 신세 졌던 많은 이들에게 보답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임 남자가 어머니를 여의고 남동생과 함께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씨는 유연수에게 임 남자를 첩으로 들이자고 청했다.

이번에는 유연수도 거절하지 않았다. 그런데 임 남자가 데려온 남동생이 바로 잃어버린 아들 인아였다. 임 남자가 버려진 인아를 거둬 동생처럼 키워 왔던 것이다.

재물을 모두 도둑맞은 교씨와 냉진의 삶은 비참했다. 냉진은 도둑질을 하다 잡혀 죽고, 교씨는 기생이 되었다. 교씨의 일을 알게 된 유연수는 교씨를 집으로 불러들이고 그 죄를 물어 죽이라 명했다.

세월이 흘러 임씨는 아들 셋을 낳았고, 유연수는 좌승상의

벼슬에 올랐다. 유연수와 사씨는 여든 살이 되도록 편안한 삶을 누렸다. 사씨가 「내훈」과 「열녀전」을 지어 세상 사람들이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니 그 덕행이 오래도록 전해졌다.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유 한림의 아버지 유공은 이윽고 주파를 보내 사 급사 부인에게 혼인할 뜻을 전하게 했다. 사 급사 부인이 주파를 불러 보았다. 주파는 먼저 유공의 가문이 대대로 부귀하며 한림의 문채와 풍류가 빼어남을 칭찬했다.

주파는 이어서 다시 말했다.

“어느 재상인들 유공에게 혼인을 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유공께서는 ‘소저의 자태가 국색(國色)이요 재덕이 출중하다.’는 소문을 들으셨답니다. 이에 소인으로 하여금 중매를 서게 한 것입니다. 소저께서는 유공 님의 폐백을 받는 날 바로 명부(命婦)\*가 되실 것입니다. 부인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부인은 매우 기뻐했다. 그렇지만 소저와 의논하고자 하여 주파를 기다리게 하고 손수 소저의 침소로 갔다. 부인은 주파가 말한 대로 전하고 소저의 뜻을 물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생각을 숨기지 말아라.”

그러자 소저가 대답했다.

“소녀가 들으니 유공은 당대의 어진 재상이라 합니다. 혼인을 맺음에 불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파의 말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소녀가 듣건대 ‘군자는 덕을 귀히 여기되 색(色)을 천하게 여기며, 숙녀는 덕을 가지고 시집을 가되 색으로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파가 먼저 소녀의 색을 칭찬했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몹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공 님의 부귀함은 크게 자랑하면서도 돌아가신 아버님의 성덕(盛德)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혹시 주파가 미천한 사람이라서 유공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소위 ‘유공이 어진 사람이다.’고 하는 말은 헛소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녀는 그 님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 급사 부인은 평소 딸을 몹시 사랑했다. 어찌 그 뜻을 어길 리가 있었겠는가? 부인은 밖으로 나가 주파에게 말했다.

“유공께서는 소녀의 재색에 대해 잘못 들으셨던 것이요, 소녀는 가난한 집에서 성장하였소. 손으로 직접 방적(紡績)하면서 여공(女工)이나 조금 익혔을 따름이라오. 어찌 부귀한 집안의 부인에 걸맞은 화용 성식(華容盛飾)이 있을 리가 있겠소. 혼사를 맺은 후에는 필시 소문과 다르다 하여 죄를 얻을 것이요,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지요. 청컨대 그렇게 회보해 주시기 바라오.”

주파는 그 말을 듣고 몹시 이상하게 여겼다. 이에 재삼 흔쾌한 승낙을 얻고자 노력했다. 그렇지만 부인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었다. 주파는 돌아가 그대로 유공에게 아뢰었다.

유공은 자못 불쾌했다. 한동안 말을 하지 않더니 다시 주파에게 물었다.

“애초 자네가 무엇이러 말씀을 하셨던가?”

주파는 자신이 했던 말을 빠짐없이 전했다. 그제야 유공은 깨닫고서 웃었다.

“내가 일에 소홀하여 자네를 제대로 가르쳐 보내지 못한 탓일세. 잠시 물러나 계시게.”

유공은 그 이튿날 친히 신성현으로 가서 지현(知縣)을 만났다. 사 급사 님에 청혼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었다.

“일찍이 주파를 보내 혼인할 뜻을 전하게 했었지요. 그런데 저 님의 대답이 이러이러했습니다. 필시 주파가 실언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수고롭겠지만 선생께서 한번 사 급사 님을 방문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지현이 대답했다.

“유공께서 명하시는데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하실 것이 없습니다. 단지 ‘사 급사의 청명(淸名)을 흠모하며 또한 소저가 부덕(婦德)을 갖추었다고 들었다.’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저 님에서 의당 허락하실 것입니다.”

“삼가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지현은 마침내 아전을 사씨 님으로 보내어 ‘지현 상공께서 장차 찾아오실 것이다.’고 전하게 했다. 부인은 그 행차가 혼사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객당을 청소하고 지현을 기다렸다.

이튿날 아침 지현이 도착했다. 소저의 유모가 소공자 회랑을 품에 안고 나아가 지현을 영접했다. 유모는 객당 마루로 지현을 안내하고 물었다.

“주인께서는 이미 세상을 뜨셨습니다. 어린 주인께서도 나이가 어려 아직 손님을 접대할 줄 모르십니다. 지현께서 무슨 일로 이렇게 왕림하셨습니까?”

지현이 말했다.

“다른 일이 아니지. 어제 유공께서 관아로 오셔서 내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네. ‘아들 혼사 때문에 처자가 있는 집을 찾은 바가 적지 않았으나 하나도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습니다. 듣건대 사 급사 님의 처자는 유한하고 요조하여 여사(女士)의 풍모가 있다 합니다. 이는 진정 내가 찾던 사람입니다. 하물며 사 급사의 청명(淸名)과 직절(直節)은 평소 흠양하던 바였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주파를 보냈으나 좋은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주파가 실언하여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고 말이지. 이제 나를 중매로 삼아 혼인을 맺으려 하신다네. 이는 좋은 일이지. 바라건대 부인에게 아뢰어 한 마디 승낙 하신다는 말씀을 얻고자 하네.”

유모는 집안으로 들어갔다가 곧 다시 나와 부인의 말씀을 전했다.

“지현께서 제 딸의 혼사를 위하여 누실(陋室)로 왕림하시니 참으로 황공합니다. 말씀하신 바 유공 님과의 혼사는 다만 감당치 못할까 두려울 따름입니다. 어찌 명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지현은 기뻐하며 돌아가 유공에게 편지로 통지했다. 유공도 크게 기뻐하며 길일(吉日)을 택했다. 유 한림이 육례(六禮)\*를 갖추어 친히 신부를 맞이했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명부: 국가로부터 봉작(封爵)을 받은 부인.

\* 육례: 혼인의 여섯 단계 절차.

##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유 한림이 사 소저와 혼인을 맺었다. 참으로 이른바 ‘요조 숙녀(窈窕淑女) 군자호구(君子好逑)\*’의 격이었다. 제대로 된 짝을 만나니 화락한 정은 그윽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이튿날 대추와 밤을 받들고 소사에게 예를 올렸다. 사흘날은 가묘(家廟)로 올라가 조상신들에게 혼사를 고했다.

그때 친척과 손님들이 마루에 가득했다. 못사람들 모두 소저를 응시하고는 단지 ‘향기로운 난초가 봄바람에 흔들리고 하얀 연꽃이 가을물에 비치는 광경’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 진퇴하는 거동이 예법을 지켜 조금도 어긋나는 바가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떠들썩하게 칭찬하며 소사에게 치하를 올렸다.

예를 마치자 소사가 신부를 가까이 불러 물었다.

“내가 일찍이 신부가 지은 관음찬\*을 보고는 그 재주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 이제 생각하니 풍월을 읊은 작품도 적지는 않을 듯한데, 어떨까?”

“문필을 희롱하는 일은 여자가 할 바가 아닙니다. 아울러 재질도 둔해 일찍이 지은 적이 없습니다. 관음찬은 어머니 명을 받고 마지못해 지었던 것입니다. 누추한 글이 존람(尊覽)\*에 들어가리라고는 미처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진실로 문필이 여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로부터 현숙한 부인들이 독서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던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는 착한 일을 본받고 악한 일을 경계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신부는 이제 우리 가문에 들어왔네. 앞으로 장부를 어떻게 섬기려 하는가?”

“어린 시절 엄부를 여의고 편모의 과분한 총애를 받으며 성장해 배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자모께서 문에서 전송하면서 ‘반드시 공경하고 반드시 경계해 지아비의 뜻을 어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른다면 아마도 대과(大過)는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아비를 어기지 않는 것이 지어미의 도리라 한다면, 지아비에게 허물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따라야 한다는 말인가?”

“그런 뜻으로 올린 말씀은 아닙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부부의 도는 오류를 고루 겸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비에게는 간언하는 아들이 있고, 임금에게는 간쟁하는 신하가 있습니다. 형제는 서로 정도로 권면하고, 봉우는 서로 선행을 권유합니다. 부부의 경우라 하여 어찌 유독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자고로 장부가 부인의 말을 들으면 이익은 적고 폐해가 많았습니다. 암탕이 새벽에 울고 사리가 밝다는 여자가 나라를 기울게 하는 것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소사는 손님들을 돌아보았다.

“우리 며느리는 조대가(曹大家)\* 같은 사람입니다.”

이어 한림을 돌아보았다.

“어진 아내를 얻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란다. 네가 내조할

아내를 얻었구나. 내가 무엇을 더 염려하겠느냐?”

이윽고 시비에게 명해 상자 속에 있던 거울 한 면과 옥가락지 한 쌍을 가져오게 했다.

소사가 그것을 소저에게 주었다.

“이것은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전하는 오래된 물건입니다. 신부의 명석함은 거울과 같고, 덕성은 옥에 비길 만하지. 애오라지 정을 표하려는 것이야.”

소저는 일어나 절을 하고 나서 받았다. 그날 소사와 사람들은 모두 크게 기뻐해 취하도록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파했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 요조숙녀 군자호구: 점잖은 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이라는 뜻.
- \* 관음찬: 관음 보살을 찬양하여 부르는 노래 글귀. 앞 대목에서 사정옥의 재덕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관음찬을 짓게 한 바 있음.
- \* 존람: 남이 관람함을 높여 이르는 말.
- \* 조대가: 후한 조세숙의 아내 반소를 높여 부르는 말. 반소는 박학해 궁중에 들어가 왕후와 귀인들을 가르쳤으며 오빠 반고가 「한서」를 편찬하다가 마치지 못하고 죽자 뒤를 이어 그것을 편찬했음.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 씨는 남몰래 매파를 시켜 양가(良家)에서 쓸 만한 사람을 고르게 하였다. 두(杜)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이내 사 씨를 찾아갔다.

“듣자 하니 남자가 장부(丈夫)를 위해 첩을 구한다고 하던데……그것이 정말인가?”

“그렇습니다.”

“집안에 첩을 두는 것은 환난의 근본이야. 한 필 말에는 두 개의 안장이 있을 수 없고, 한 그릇 밥에는 두 개의 수저가 있을 수 없지. 비록 장부가 원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만류해야 할 것이야. 그런데 하물며 스스로 구하려 한다는 말인가?”

“첩이 존문에 들어온 지 이미 구 년이나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녀를 하나도 두지 못했습니다. 옛날 법도에 따르자면 응당 내침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소실(小室)\*을 꺼릴 수 있겠습니까?”

“자녀의 생육(生育)이 빠르거나 늦음은 천수(天數)에 달린 것이야. 사람들 가운데에는 간혹 서른이나 마흔 살 이후에 처음으로 자식을 낳는 일도 있지. 남자는 이제 겨우 스물을 넘겼어. 어찌하여 이처럼 근심을 지나치게 하는가?”

“첩은 타고난 체질이 허약합니다. 나이는 아직 늙지 않았으나 혈기가 벌써 스무 살 이전과는 다릅니다. 월사(月事)도 또한 주기가 고르지 않지요. 이는 첩만이 홀로 아는 일입니다. 하물며 일처일첩(一妻一妾)은 인륜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첩에게 비록 관저(關雎)의 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세속 부녀자들의 투기하는 습속은 본받지 않을 것입니다.”

“자네는 지금 내 말을 비웃고 있는 것인가? 내가 장차 사리에 맞게 이야기를 하겠네. 관저와 규목(樛木)\*의 덕화(德化)는 본디 태사(太姒)가 투기하지 않은 덕 때문이었지. 그렇지만 문왕(文王)도 또한 여색을 좋아하지 않았어. 그 때문에 중첩(衆妾)들도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던 것이야. 가령 문왕이 미색에 빠져 애증을 고르게 하지 못했다면, 태사가 비록 투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궁중에 어찌 원망하는 소리가 없을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내정은 어찌 어지럽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고금에 따라 도리가 다르지. 성인과 범인도 차이가 있는 법이야. 한갓 투기하지 않는 것만을 믿고 이남(二南)\*의 교화를 이루려 한다면, 이는 참으로 허명(虛名)을 탐하다 실화(實禍)를 부르는 형세라 할 것이야.”

“첩이 어찌 감히 고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근세의 부녀자들을 살펴보면 인륜을 무시하고 성인을 모욕합니다. 구고(舅姑)\*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장부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오직 질투만을 일삼아 남의 가문을 어지럽게 하고 남의 선사(先祀)\*를 끊어지게 합니다. 첩은 진실로 그를 분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람이 미천하여 풍속을 교화할 수는 없으나 어찌 차마 그러한 잘못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장부가 만약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부정한 여색에 빠진다면, 첩이 비록 노둔하나 응당 혐의를 무릅쓰고 힘써 간할 것입니다. 이는 또한 도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부인은 더 만류할 수 없음을 깨닫고 탄식하였다.

“신인(新人)이 착하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야. 그렇지 아니하여 장부의 마음이 한번 그쪽으로 기울기라도 한다면 장차 무슨 일인들 일어나지 않겠는가? 남자는 후일 반드시 내 말을 생각할 것일세.”

이윽고 두 부인은 탄식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사 씨의 주선으로 첩으로 들어온 교 씨는 아들 장주를 낳게 되고, 이를 계기로 교 씨가 사 씨의 자리를 엿보던 중 사 씨가 잉태를 하게 된다.

사 부인은 달이 차자 과연 남아를 낳았다. 아이는 골격이 비상하고 신체(神彩)\*가 영매(英邁)\*하였다. 한림은 크게 기뻐하여 아이의 이름을 인아(麟兒)라 하였다.

교 씨는 비록 화심(禍心)\*을 품고 있었으나 그 뜻을 이룰 수 없었다. 마지못하여 사 부인에게 경하를 올리며 걸으로는 기쁜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한림과 사 씨는 여전히 그것을 진정이라 여겼다.

인아가 점점 자라 장주와 같은 장소에서 함께 놀았다. 그런데 인아는 비록 어리기는 하였으나 기상이 탁월하였다. 장주가 한갓 아름답기만 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하루는 한림이 밖에서 집으로 들어와 상의도 벗기 전에 인아를 안고 어루만졌다.

“이 아이는 이마의 골격이 기특하여 선인(先人)\*과 매우 닮았느니라. 훗날 반드시 우리 가문을 창성하게 할 것이야.” 그리고 인아의 유모에게 각별히 잘 기르도록 당부하였다. 이에 장주의 유모는 장주를 안고 교 씨에게 달려가 호소했다. “상공께서 유독 인아만을 어루만지며 장래를 촉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장주를 보더니 못 본 체하고 그대로 지나가셨습니다.”

교 씨는 더욱 근심하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할 때 용모의 아름다움은 전혀 나은 것이 없지. 그러나 적첩(嫡妾)\*의 분의(分義)\*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 단지 나는 아들을 낳고 저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었어. 그 때문에 내가 장부의 후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야. 그런데 이제 저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 저 아이가 장차 이 집의 주인이 될 것이야. 내 아이는 아무 쓸데가 없게 될 것이 아닌가? 저 사람이 걸으론는 어진 체하고 있지. 하지만 화원에서 나를 책망한 말은 분명히 시기를 부린 것이었어. 하루아침에 나를 한림에게 참소\*한다면, 한림이 평소 저를 믿고 있으니 내 신세를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교 씨는 다시 이십량을 불러 의논하였다. 이십량은 전에

이미 교 씨로부터 많은 금은을 받은 터였다. 마침내 서로 한 마음이 되어 간악한 음모와 사특한 계교를 만들어 내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렇지만 그 기미가 워낙 은밀하였다. 누구도 그것을 눈치채는 사람이 없었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 소실: 첩.
- \* 관저의 덕: 주나라 문왕과 그 후비의 성덕을 의미함.
- \* 규목: 질투하지 않는 문왕 후비의 부덕을 읊은 시.
- \* 태사: 문왕의 왕비.
- \* 중첩: 본처 외에 한 남자가 데리고 사는 여러 명의 여자.
- \* 이남: 주나라 왕실의 덕화를 노래한 시들을 모아 놓은 부분.
- \* 구고: 시부모.
- \* 선사: 선조의 제사.
- \* 신체: 정신과 풍채를 아울러 이르는 말.
- \* 영매: 성질이 영리하고 비범함.
- \* 화심: 남을 해치려는 마음.
- \* 선인: 선친. 남에게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이르는 말.
- \* 적첩: 본처와 첩을 아울러 이르는 말.
- \* 분의: 자기의 분수에 알맞은 정당한 도리.
- \* 참조: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침.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유 한림이 서원에서 잔치를 끝내고 백자당에 이르러 술이 취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난간에 걸터앉아 원근을 바라보니, 달빛은 낮과 같고 꽃향기는 무르녹으니 취흥이 발작하는지라. 교씨를 명하여 노래를 부르라 하니 교씨 가로되,

“바람이 차매, 몸이 아파 노래를 부르지 못하겠소이다.”

하고 굳이 사양하니 한림 가로되,

“여자의 도리는 남편이 죽을 일을 하라 하여도 반드시 명을 어기지 못하거늘 이제 내가 핑계로 내 말을 거역하려 드니 어찌 여자의 도리라 하리오.”

“첩이 아까 심심하기로 노래를 불렀더니 부인이 듣고 불러 책하시되, 요괴한 노래로 집안을 요란하게 하고 상공을 미혹하게 하니, 네 만일 이후로 또 노래를 부르면 내게 혀를 꿇는 칼도 있고 병어리 만드는 약도 있나니, 삼가 조심하여라 하시니 첩이 본래 빈한한 집 자식으로 상공의 은혜를 입사와 부귀영화가 이 같사온데, 비록 죽어도 한이 없겠나이다. 만일 첩으로 말미암아 상공의 청덕에 흠이 되면 어찌 하오리까.”

한림이 크게 놀라고 마음속에 생각하되,

‘부인이 투기하지 않겠노라 하고 또 교씨 대접하기를 후히 하여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더니, 이제 교씨의 말을 들으니 가내에 무슨 연고가 있도다.’

하고 교씨를 위로하여 가로되,

“너를 취함이 다 부인이 권한 바요, 일찍이 부인이 너 대접하기를 극진히 하여 한 번도 낮빛이 변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는 아마 비복들이 참언(讒言)을 꾸며냄이라. 부인은 본디 유순해서 결코 네게 유해함이 없을지니 너는 부질없는 염려를 말고 안심하라.”

교냥자는 마음 속에 앙양(怏怏)\*하나 할 수 없이 사례할 뿐이었다. 속담에 이르기를 ‘범을 그리매 뼈를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사귀매 그 마음을 알기 어렵다’ 하니, 교씨의 공교한 말과 아리따운 빛으로 말은 공손하매 사 부인이 교씨의 안과 밖이 다름을 어찌 알리오. 예사 사람으로 알고 다만 음탕한 노래가 장부를 미혹하게 할까 염려하여 교씨를 진심으로 훈계한 것이고 조금도 투기함이 아니었다. 그러나 교씨는 한을 품고 공교한 말을 지어 가화(家禍)를 빚어내니, 교씨의 요악한 투기였다.

하루는 시비 납매가 사 부인 시비들과 같이 놀다가 들어와 교씨더러 일러 가로되,

“지금 추향(秋香)의 말을 듣건대 부인께서 태기가 계신 듯 하다 하더이다.”

교씨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가로되,

“성친\*한 후 십 년이 지나서 잉태함은 참 희한한 일이다. 혹시 월경이 불순하셔서 그릇 그런 소문이 난 것이 아닌가.”

하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체하나 속으로 생각하기를, ‘사씨가 정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보면 나는 쓸데없이 될 것이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나.’

하고 혼자 애를 태우고 있는 동안에 사 부인의 태기가 확실해지니, 온 집안이 모두 기뻐하였다. 하지만 교씨는 시기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여 납매와 동\*을 짜고 낙태할 약을 여러 번 사 부인 먹는 약에 타서 드렸으나 어쩐 일인지 부인이 그 약만 마시면 구역질이 나서 토해 버렸다. 이는 천지신명이 도우심이라 간악한 수단을 쓸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부인이 만삭이 되어 아들을 낳으니 골격이 비범하고 신체가 준수한지라. 한림이 크게 기꺼워하며 이름을 인아라 일컬었다. 인아가 차차 자라매 장주와 같이 한곳에서 놀 때 인아 비록 어리나 씩씩한 기상이 장주의 잔약함과는 현저히 다른지라. 한림이 한 번 밖에서 들어오다가 두 아이의 노는 것을 보고 먼저 인아를 안고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이 아이의 이마가 흡사 선인을 닮았으니 장래 반드시 우리 가문을 빛나게 하리로다.”

하고 내당\*으로 들어갔더니, 장주 유모가 들어와서 교씨에게 고하여 가로되,

“상공이 인아만 안아 주고 장주는 돌아보지도 않더이다.”

하고 인하여 눈물을 흘리니 또한 교씨는 애를 태워 가로되, “내 용모와 자질이 모두 사씨에게 미치지 못하고 더욱이 본처와 첩의 분의(分義)\*가 현격하게 다르건마는 다만 나는 아들이 있고 저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상공의 은총을 받아 왔거니와 지금은 저도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이가 이 집 주인이 될 것인즉 내 아들 장주는 쓸데없는 군것에 불과한지라. 부인이 비록 좋은 낮으로 나를 대하지만 그 마음은 실로 알 수 없으니, 만일 부인의 간계로 상공의 마음이 변한즉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다.”

하고 다시 십량을 칭하여 의논하였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 앙양: 마음에 만족하지 않는 모양.
- \* 성친: 친척이 된다는 뜻으로, ‘혼인’을 달리 이르는 말.
- \* 동: 묶어서 한 덩어리로 만든 것.
- \* 내당: 안주인이 거처하는 방. 규방.
- \* 분의: 자기의 분수에 알맞은 정당한 도리.

##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루는 유 한림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석 낭중이란 사람이 편지를 보내 남쪽 지방이 고향인 동청이란 자를 천거했다. 동청이란 사람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세상에 떠돌며 무뢰배와 어울려 주색잡기를 일삼았다. 그나마 있던 재산을 탕진하고 생계가 막연하여 객지로 나와 대갓집에 빌붙어 살았다. 잘생긴 얼굴에 말주변과 글재주가 있으니 이름난 선비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을 받아들여 잘 대해 주었다. 그러나 그 자제들을 유혹하여 나쁜 짓을 같이 하는 바람에 결국 쫓겨나게 되었다. 그러다가 석 낭중의 집에까지 오게 되었고, 낭중도 동청의 정체를 알고는 괴로워하던 중이었다. 낭중이 마침 외직으로 부임하는 차에 동청의 허물을 감추고 유 한림에게 소개한 것이다.

유 한림은 마침 마땅한 사람을 구하던 차였다. 동청을 만나 보니 말하는 것이 흐르는 물과 같고 풍모도 반듯하여 흔쾌히 서사(書士)\*의 직분을 맡겼다. 동청은 재주가 있고 눈치가 빨라 매사를 한림의 뜻대로 챙기니 신임이 두터웠다.

이를 본 사씨가 한림에게 말했다.

“첩이 듣기로 동청은 정직하지 않아 여러 곳에서 배척을 받았다 하옵니다. 그러니 머무르게 하지 말고 빨리 내보내소서.”

유 한림이 말했다.

“동청을 머물게 하는 것은 단지 글을 구함이지 벼를 삼으려는 것이 아니오. 무슨 상관이 있겠소?”

사씨가 말했다.

“비록 벼는 아니지만 좋지 않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자연히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집안에 두어 법도가 잘못될까 걱정하는 것이옵니다.”

한림이 말했다.

“부인의 말씀이 옳지만 남을 비방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소. 혹 동청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비방을 받았을 수 있으니 두고 보면 자연히 알리라. 부인은 걱정 말고 집안 하인들이나 잘 다스려 법도가 어지럽지 않게 하오.”

한편 교씨는 사씨가 동청을 배척하는 것을 알고 납매와 함께 동청과 은밀히 만나면서 계책을 의논하였다.

자고로 여자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못할 일이 없는 법이라. 십량은 교씨를 위해 남자를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이후로는 한림이 교씨에게 폭 빠져 종전의 모습을 잃었다. 사씨는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별 수 없어 그냥 두고 보았다. 교씨는 사씨를 시기하여 한림에게 여러 번 비방을 했지만 여의치 못하자 조바심이 들어 다시 십량을 불러 물었다.

“나의 이러한 재주와 용모로 남의 첩이 되어 장차 앞길이 어떻게 될지 기약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사씨를 없애면 은혜를 후하게 갚으리라.”

십량이 한참 만에 말했다.

“이 일이 참으로 난처하니 다른 묘책이 없는지라. 장주 공자가 병들기를 기다려 여차여차 하옵소서. 다급하니 서둘러야 합니다.”

교씨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십량이 만들어 준 방자\*에 쓰이는 요망한 물건들을 사방에 두루 묻고 납매를 불러 음모의 절차를 자세히 일러 주었다. 은밀하게 일을 진행하니 집 안에서는 세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몇 달이 지나 가을이 되었다. 장주가 감기에 걸려 때때로 토하며 놀라는 증세를 보였다. 십량이 말한 계책을 실행할 때가 온 것이다. 장주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한림이 백자당에 오자 교씨가 울며 말했다.

“장주가 갑자기 병에 걸려 크게 앓으니 이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옵니다. 증세를 보니 예사 병이 아니라 분명 집안 누군가가 장주를 저주하여 생긴 병인가 하나이다.”

한림이 교씨를 위로하고 나서 장주의 병세를 보니 증세가 가볍지 않았다. 매우 걱정하면서 약을 지어 먹였지만 별 차도가 없었다. 한림은 걱정하고 교씨는 곁에서 즐기치게 울었다. 한림은 교씨의 유혹에 빠져 총명이 점점 흐려져 사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니 어찌 안타깝지 아니하랴.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서사: 문서를 정리하거나 필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

\* 방자: 남이 못되거나 재앙을 받도록 귀신에게 빌어 저주하는 술법.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유 한림은 덕성과 학문을 겸비한 사정옥과 혼인하지만, 사씨는 여러 해가 지나도 태기가 없었다. 이에 사씨는 집안을 위하여 교씨를 한림의 첩으로 맞아들였고, 교씨는 아들 장지를 출산한다. 하지만 간악한 천성을 지닌 교씨는 사씨를 내쫓고 정부인이 되고자 늘 사씨를 음해하는 계락을 꾸몄다.

이때 마침 사 부인 몸에 태기가 있어서 열 달이 차서 순산생남하였으므로 한림이 인아(麟兒)라 이름 짓고 기뻐하고, 상하 비복들까지 단념하였던 본부인이 득남하였으므로 신기히 여기고 교씨가 생남하였던 때보다 몇 배로 경축하였다. 교씨가 이런 한림과 집안의 기색을 보고 질투가 더욱 심해져서 간장이 타오르는 듯 어쩔 줄을 몰랐다. 십량을 또 불러서 이 사실을 전하고 빨리 사씨 음해의 비방을 행하라고 재촉하였다. 십량은 곧 요물을 만들어서 사면에 묻고 교씨의 심복 시비인 납매를 시켜서 이리이리하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런 간악한 음모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교씨, 십량, 시비 납매 세 사람 이외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하루는 유 한림이 조정에 입번하였다가 여러 날 만에 출번하여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집안의 상하가 황황하며, 교씨 소생장지가 급한 병이라고 고하였다. 한림이 놀라서 교씨 거처인 백자당으로 달려가니 교씨가 한림을 보고 울면서 호소하였다.

“그애가 홀연히 발병하여 죽을 지경이니 심상치 않습니다. 병세가 체증이나 감기가 아니고, 필경 집안의 누가 방예\*를 해서 일으킨 귀신의 발동인가 합니다.”

“설마 그럴 리야 있을까?”

한림은 교씨를 위로하고 아들의 방으로 가서 보니, 과연 헛소리를 지르고 가위 놀리는 증세로써 위급해 보였다. 한림이 우려하여 약을 지어다 시비 납매에게 급히 달여서 먹이게 하고 동정을 자세히 보았으나 조금도 차도가 없었다. 한림은 낙망을 하고, 교씨는 엉엉 울기만 하였다.

한림의 총명도 점점 감하여 갔는데, 열 번 짚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과 같이, 교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의심이 늘어서 모든 일에 쫓대를 잃게 되었다. 사 부인의 부덕은 옛날 현부에도 손색이 없었으나 교씨 같은 요인(妖人)이 첩으로 들어와서 집안을 어지럽히고 미친한 여자가 누명을 만들어서 가문을 욕되게 하니, 마땅히 그런 사악한 여자는 엄중히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교씨가 교활한 집사 동청과 몰래 사통하고 있었으니, 실로 한 쌍의 요악지물이었다. 교씨의 침소인 백자당이 밖으로 담 하나를 격하여 화원이 있었으며 화원의 열쇠는 교씨가 가지고 있었으므로, 한림이 내당에서 자는 밤에는 교씨가 동청을 화원 문으로 불러들여서 동침하여 음란을 일삼았다. 그러나 엄중한 비밀의 사통이라 시비 납매만이 알 뿐이었다.

한림이 장지의 병이 심상치 않음을 보고 매우 애통하고 있을 때 교씨마저 칭병하고 식음을 끊고 밤이면 더욱 슬퍼하여 한림

의 마음을 불안케 하였다. 하루는 납매가 부엌에서 소세하다가 한 봉의 괴이한 방예를 얻었다고 한림과 교씨에게 보였다. 그것을 본 교씨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서 말을 못하고 앉았다가 이윽고 울면서 말했다.

“제가 십육 세 때 이 댁으로 들어와서 남에게 원망 들을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모자를 이토록 모해하니, 참으로 억울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한림이 그 방예한 요물을 보고 묵묵히 말을 하지 못하고 침통해 하고만 있었다.

“한림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교씨가 이 기회에 한림의 결의를 촉구하였다. 한림은 한참 생각한 끝에 말했다.

“일이 비록 잔악하지만 집안에 의심할 잡인이 없으니, 누구를 지목하고 문초하겠는가. 이런 요예지물은 아무도 모르게 불태워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교씨가 문득 생각난 듯이 태도를 하다가 참는 척하고,

“한림 말씀이 지당합니다.”

대답하자, 한림이 안심한 듯이 납매에게 불을 가져오라고 명하여 뜰에서 친히 살라 버리고, 아무에게도 누설하지 말라고 일렀다. 그러자 한림이 나간 뒤에 납매가 교씨에게 불평스럽게 물었다.

“남자께서는 왜 한림의 의심을 부채질해서 예정대로 일을 진행시키지 않고, 좋은 기회를 잃었습니까?”

“이번에는 한림께 그만 정도로 의심하게 해 두는 것이 좋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가 도리어 의심을 사고 해로울 것 같아서 그랬다. 다음 기회에 한림께서 더 결심을 굳게 하시도록 할 것이니 너는 너무 조급히 굴지 말아라. 그만해도 한림의 마음은 이미 동하였으니 요 다음에……”

이리이리하자고 납매에게 다음 계교를 말해 두었다. 한림이 그 방예의 글씨가 사씨의 글씨임을 알았는데, 그 근본을 깨어 내면 자연 난처한 사정이 있을 듯하여 불에 살라서 증거를 없앴던 것이다. 그 뒤에 생각하기를, 전에 교씨가 사 부인의 투기를 은연중에 비방하였을 때에도 믿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런 일까지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당초에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서 사 부인의 주선으로 교씨를 첩으로 맞아들였더니 지금 와서는 자기도 자식을 낳게 되자, 악독한 계교로 교씨 소생을 방예로 저주하여 없애려고 한다고 부인 대접에 냉담하게 되었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방예 : 질병이나 재해와 관련된 귀신의 조화를 조절하는 일. 또는 그런 기능을 지닌 부적.

## [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교 씨가 생각하다가 말했다.

“사 씨의 시비인 설매는 납매의 사촌이어서 유혹하기 쉬우니 불러서 물어보리라.”

이렇게 말하고는 곧장 설매를 불러 뇌물을 후하게 주며 납매와 함께 사 씨의 물건 훔칠 일을 의논하였다. 설매가 재물을 받고는 기뻐하며 납매에게 말했다.

“열쇠를 구할 수만 있다면 쉬운 일이지만 대관절 무엇에 쓰러 하느냐?”

납매가 말했다.

“용도는 묻지 말고 비밀로 해라. 만일 다른 사람이 알면 너와 나는 죽을 것이다.”

이 말을 교 씨에게 전하자 즉시 열쇠를 주면서 말했다.

“부인이 아끼고 한림이 평소에 자주 본 것을 구하고자 하노라.”

설매가 응낙하고 가서는 옥가락지를 훔쳐 왔다. 교 씨가 기뻐서 다시 설매에게 재물을 주고는 동청과 함께 계교를 행하려 하였다.

이 때 사씨의 친정 모친께서 돌아가시니 사 씨가 교 씨에게 말을 전했다.

“친정 모친의 초상을 치르고 돌아갈 것이다. 상공께서도 아니 계시니 부디 집안일을 잘 살피라.”

교 씨는 사 씨가 돌아올 날이 아직 많이 남았음을 기뻐했지만 놀라는 척하며 즉시 납매를 사 씨에게 보내 문안을 드렸다.

한편 동청은 심복인 냉진이라는 놈을 불러 많은 재물을 주면서 말했다.

“유한림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주쳐서 이리이리 하라.”

냉진은 원래 이곳저곳을 떠도는 무뢰배인데 재물을 보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인물이라. 기쁨을 감추지 못해 허락하고는 지름길을 택해 산둥 지방으로 가서 유한림을 만나려고 하였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냉진은 산둥의 주막에서 유한림을 만나 친분을 쌓는다. 유한림은 냉진의 웃고름에 매달려 있는 옥가락지 한 쌍을 보고 출처를 묻고, 냉진은 그것이 신성현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표로 받은 것이라 말한다.

이후 반년이 지나자 유한림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다. 사 씨도 모친의 초상을 치르고 돌아와 있었다. 한림이 사 씨를 만나 장모의 죽음을 슬퍼하는 한편 교 씨와 인아, 장주를 다 불러 모았다. 이윽고 사 씨에게 물었다.

“선친께서 살아 계실 때 부인에게 준 옥가락지는 어디에 있소?”

사 씨가 말했다.

“상자 속에 간수하였나이다.”

한림이 말했다.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니 지금 바로 보고자 하오.”

사 씨가 이상하게 여겨 상자를 열어 보니 다른 보물은 다 있지만 유독 옥가락지는 보이지 않았다. 매우 놀라며 말했다.

“옥가락지를 분명 상자 속에 간직해 두었거늘 어디로 가고 없는고?”

이에 한림이 말했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주고서는 어찌 모른다 하시오?”

사 씨가 한림의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고는 부끄럽고 분해서 말을 못하고 잠잠히 앉아 있었다. 시비가 와서 말했다.

“두 부인께서 오시나이다.”

한림이 나아가 두 부인을 맞이하여 인사를 마친 후 고했다.

“집안에 큰 변이 있으니 알리나이다.”

두 부인이 말했다.

“무슨 일인고?”

한림이 냉진을 만나 겪은 일과 옥가락지가 없어진 일을 자세히 고했다. 사 씨는 이 말을 듣자 넋이 달아난 듯 다만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첩이 행실을 조심하지 못하여 이런 지경에 빠졌으니 무슨 면목으로 사람을 대하리오. 그러나 옛말에 이르기를 총명한 군자는 비방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 하였으니 원컨대 상공은 깊이 살피소서.”

사 씨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강개하고 표정에 변화가 없었다. 두 부인이 이 모습을 보고는 크게 화를 내면서 한림을 꾸짖어 말했다.

“너의 총명함을 돌아가신 유 소사와 비교하면 어떠하냐?”

한림이 대답했다.

“저를 어찌 감히 선친께 비교할 수 있겠나이까?”

두 부인이 말했다.

“돌아가신 유 소사께서는 원래 사람을 보는 안목이 뛰어날 뿐 아니라 세상의 크고 작은 일에 모르는 것이 없었다. 항상 사 씨를 보고 누구도 따르지 못할 요조숙녀라고 했다. 임종 시에 나에게 당부하시기를 네 나이가 어리니 각별히 가르치라igo 했지만 사 씨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었다. 이는 바로 유 소사께서 이미 사 씨의 어진 됴됨이를 알고 계셨던 까닭이라. 이제 간악한 행실을 사 씨에게 뒤집어씌우려 함은 집안에 간악한 사람이 있어 사 씨를 모함함이라. 네 어찌 그 실상을 파헤쳐 어진 사람을 구하고 간악한 사람을 다스리지 못하는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찌 나라의 일을 하리오. 참으로 한심하도다.”

한림이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고모님의 말씀이 이와 같으시니 저의 어리석은 죄는 죽어도 마땅하옵니다.”

즉시 형벌 기구를 갖추고는 모든 시비를 엄히 문초하였다. 모진 형벌에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난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리오. 그중 설매도 있었지만 교 씨의 심복인 탓에 자백하지 않았다. 두 부인은 별 수 없어 일단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사 씨는 누명을 벗지 못하여 거적을 깔고 앉아 죄인으로 자처했다. 이후 한림이 교 씨만 찾으니 교 씨가 매우 기뻐 모든 일을 제 마음대로 처리했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친께서 항상 말씀을 빗내어서 사씨를 옛날의 열부에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하(眼下)로 보니 첩인들 어찌 좋지 않은 일을 해서 남의 치소(嗤笑) 능욕을 받겠습니까. 첩의 소견으로도 두 부인 말씀이 옳을까 합니다. 그러나 두 부인 말씀도 역시 공평하지 못하셔서 사씨만 너무 칭찬하시고 한림을 너무 공박하시니 자못 체면이 없어서 민망스럽습니다. 옛날의 성인도 오히려 속은 일이 많사오니, 선친이 비록 고명하시나 사씨가 들어온 후에 오래지 않아서 기세(棄世)하셨으니 어찌 사씨의 심지를 예탁(預託)하심이며 임종시의 유언은 한림을 경계하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부인이 그 말씀을 빙자하여 모든 일을 사씨에게 상의하여 처리하라 강요하시니 어찌 편벽되지 않습니까?”

“사씨의 행색에 별로 구차한 점이 없어서 나도 이런 일은 없을 줄 알았더니 지금은 아무래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다. 요전에는 방예물의 저주 필적이 사씨 필적 같아서 그때는 집안의 누구의 참언인가 하고 불살라 버리게 하였지만 옥지환이 없어진 일 같은 중대한 사건을 본 뒤로는 금후에 어떤 지경에 이를지 매우 불안하다.”

하고 유한림이 사씨에 대한 현재의 심경을 말하자 교씨가 이때라고 다그쳐 물었다.

“그러면 사 부인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나 지금 명백한 증참(證參)이 없으니 이대로는 다스릴 수 없고 또 선친께서 사랑하셨고, 초토(草土)를 함께 지내었고, 숙모께서 그토록 두둔하시니 어찌 처치하겠는가.”

유한림의 이런 신중한 태도에 교씨는 불만인 안색으로 묵묵히 대답하지 않았다.

교씨가 또 잉태하여 십 삭이 차서 남아를 낳았으므로 한림이 기뻐하고 이름을 봉추(鳳雛)라 하고, 교씨 소생 형제를 사랑함이 장중보옥(掌中寶玉) 같았다.

교씨는 한림이 없을 때를 타서 동청과 함께 흥계를 꾸미고 있더니,

“요전에 행한 계교가 실로 묘하였소. 옛말에도 풀을 뿌리째 뽑아 없애야 한다고 했으니 앞으로 어찌할까요? 더구나 두 부인과 사씨가 옥지환 없어진 근맥(根脈)을 잡아 내어서 그 내막이 누설되면 어떡할까요?”

교씨가 전후사를 근심하자 동청이 교씨를 위로하면서 교사하였다.

“두씨가 옥지환 사건을 극력 추궁하고 있으니 숙질 간을 참소하여 이간시키시오.”

“나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두 부인과 한림 사이를 이간시키고자 하지만 한림이 두 부인 섬기기를 모친 못지않게 하여 모든 집안일을 두 부인 뜻에 순종하니 그 계략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묘책이 곧 생각나지 않으니 두고두고 상의합시다.”

하고 사씨 음해를 끈덕지게 베프고 있었다.

이때, 두 부인은 사씨의 누명을 벗겨 주려고 사람을 시켜서 옥지환이 없어진 단서를 염탐하였으나 마침내 단서를 잡지 못하고 심증으로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교녀의 간계 같은데 단서를 잡지 못하였으니 그런 발설을 할 수도 없고 이 일을 장차 어찌할까.’

하고 속을 썩이고 있었다. 그래서 유한림 집에 오래 머무르기도 거부해 하다가 아들 두억(杜億)이 장사부 총관으로 부임하므로 그 아들을 따라 장사로 가게 되었다.

(중략)

교씨는 원수같이 여기다가 이제 멀리 장사로 감을 내심으로 기뻐하고 십량을 불러 놓고,

“지금까지 원수 같던 두 부인이 이제 아들을 따라 멀리 가게 되었으니 이때에 빨리 계획대로 해치우는 것이 좋겠네.”

십량이 찬성하고 계획을 진행하기로 하고 납매를 불러서 이리저리하라고 일렀다. 그 말을 들은 납매는 설매를 불러서 계교를 일러 주었다.

“매우 중대한 일이니 먼저 교냥자에게 알리고 하는 것이 좋을 것 아니요?”

하고 설매는 교씨의 확실한 다짐을 받으려는 생각에서 말하자 납매도 찬성하고 교씨와 함께 만나서,

“지금 사씨 부인을 이 데에서 내쫓으려면 아씨 아드님 장지 아기의 목숨을 끊어야 한림께서도 격분하시고 계교를 행할 수 있을까 합니다.”

교씨도 자기 아들의 목숨을 희생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말에는 깜짝 놀랐다.

“미운 사씨를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을 하여도 좋지만 어찌 귀여운 내 아들의 목숨을 재물로 바치겠느냐? 그리고 어찌 내가 살 수 있겠느냐?”

이에 악에 바쳐서 묵묵히 말을 못하고 있었다.

이때, 유한림은 두 부인이 멀리 떠난 후 더욱 기댈 곳이 없어서 주야로 백자당에서 교씨와 즐겁게 지내던 중 아들 장지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을 근심하면서 납매와 설매에게 약시중을 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설매가 역시 사씨 부인의 시비인 춘방을 시켜서 약을 달이게 한 뒤에 장지에게 먹일 때 몰래 독약을 섞어서 먹였다.

이 얼마나 끔찍하라. 교씨는 남을 잡으려고 제 자식을 죽이기까지 하였으니 어찌 천도가 무심하며 만고의 독부(毒婦)가 아니겠는가. 천진한 어린아이 장지가 약을 먹자마자 전신이 푸르게 부어오르고 일곱 구멍에서 일시에 피를 흘려 내면서 한마디 큰소리를 지르고 죽어 버렸다. 교씨와 유한림이 대경실색(大驚失色)하고 장지의 시체를 살펴보니 독약을 먹고 죽은 것 같으므로 유한림이 의심하고 약 그릇을 가져와 남은 약을 개에게 먹여 본즉 약을 먹은 개가 즉사하였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한림학사 유연수는 정부인 사씨에게 자식을 얻지 못해, 교녀를 첩으로 들인다. 교녀는 유 한림과의 사이에 아들을 먼저 낳지만 이후 사 부인이 아들을 낳자 위협을 느낀다.

두(杜) 부인이 멀리 가매, 교녀가 등에 가시를 베푼 듯하여 동청에게 사 부인 해하기를 모의한다. 동청이 말한다.

“내 한 계교가 있으되, 두려하건댄 낭자가 듣지 아니할까 하여 못하노라.”

교녀가 물으니 동청이 말한다.

“옛적 당나라 황제가 후궁 무 소의의 딸을 사랑하여 제 자식 같이 하니, 무 소의 제 딸을 제가 눌러 죽이고, 황후를 모함하여 죽이려 하매, 황제 그 말을 곧이듣고 황후를 폐하고 무 소의로 황후를 봉하였으니, 이 계교를 행하면 낭자가 뜻을 이루리라.”

교녀가 묻는다.

“자기 자식은 애중하면서, 남의 자식은 해코자 하는다?”

동청이,

“낭자의 신세가 위태하여 마치 범을 탄 것과 같으니,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정녕 후회하리라.”

교녀가,

“이 계교는 차마 듣지 못하리니, 다른 좋은 모계를 획책하라.”

동청이 대답하지 않고 납매더러 이르기를,

“낭자 사람됨이 잔약하여 이 계교를 행치 아니하면 우리 다 죽을 것이니, 네 틈을 타 행하라.”

이후 납매 하수코자 하되 틈을 얻지 못하더니, 하루는 장주가 난간에서 자더라. 사방을 살펴보니 다른사람은 없고, 사 부인의 몸종 춘방이 설매와 같이 풀싸움하며 난간 아래로 가거늘 멀리 간 후, 즉시 올라가 장주를 눌러 죽이고, 설매를 따라와 이르되,

“네 전일에 옥지환을 도적하였으니 부인과 노야가 아시면 죽을 것이니, 어느 때에 노야가 너를 잡아 물으시거든, 여차여차하게 대답하면 죄를 면하고, 많은 상을 교 낭자에게 얻으리라.”

하니 설매 응낙하더라.

장주의 유모가 장주가 깨었는가 하여 와 보니 장주가 칠규로 피를 흘리고 죽었거늘 대성통곡하더라. 교녀가 넘어질 듯이 와 보고 하릴없는지라 크게 울며, 이것이 동청의 한 짓인 줄 아나, 흥모를 행코자 함인 줄 아므로 급히 한림께 알린다. 한림이 들어와 본즉, 차악한 경상(景狀)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교녀가 통곡한다.

“이 일이 반드시 연전에 저주하던 사람의 짓이라 시비들을 문초하면 알리이다.”

한림이 즉시 형구를 갖추고, 사 부인에게 친신(親信)히 잔심부름 하던 비복을 엄문하니, 장주 유모는

“소비가 공자를 안고 난간 위에서 놀다가 잠들기에 누이고 잠깐 밖에 나아갔삽더니 그 사이 변이 났사오니, 사죄할 뿐

이요,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납매는,

“소비가 보오니 춘방과 설매가 난간 아래로 지나더이다.”

하고 말한다. 춘방과 설매를 엄형 국문(鞫問)하니, 춘방은 독형(毒刑)을 입어, 유혈이 임리(淋漓)하나 애매함을 고하고 설매는 처음은 춘방의 말과 같이 하더니, 나중은 소리를 크게 하여 하는 말이,

“대형벌을 당하여 죽기에 이르렀는데, 어찌 직고치 아니하리까. 부인이 소비와 춘방에게 분부하사 ‘장주 공자를 죽이면 큰 상을 내리리라.’ 하시기에 소비 등이 기회를 엿본 지 오래이나, 행치 못하였더니 오늘 지나다가 보온즉, 공자가 홀로 난간에서 자옵는데, 소비는 차마 하수치 못하옵고, 춘방이 올라가 눌러 죽였나이다.”

한림이 대로하여 춘방을 다시 엄형하니 춘방이 설매를 크게 꾸짖는다.

“무죄한 부인을 팔아 살기를 도모하니 견마라도 그 주인을 한 맘으로 섬기거늘 네 간사한 무리와 어울려 재물을 받고 주인을 해코자 하는다? 내 장(杖)을 맞아 죽을지언정 어찌 무죄한 부인을 해하리오. 황천후토(皇天后土)는 부인의 원통한 누명을 씻어 주소서.”

하고 안색을 불변하고, 마침내 복초(服招)치 아니하고 장을 맞아 죽더라.

(중략)

이때 승상 엄승이 도사의 잡술로 천자를 미혹하게 하는지라, 한림이 상소하여 간하였더라. 상이 기뻐 아니하사 비답(批答)지 아니하시고,

“다시 간소(諫疏)를 올리면 죽을 죄로 다스리리라.”

하시니 한림이 불안하여 사직하고 집에 있더라. 하루는 아는 도사가 왔거늘 한림이 몽사변잡(夢事煩雜)함을 이르고 도사를 데리고 안에 들어가니 도사 두루 살펴보며 한림 처소의 벽을 헤치고 목인(木人)을 무수히 찾아낸다. 한림이 매우 놀라매 도사가 웃으며 말한다.

“이는 오직 상공의 애정과 관심을 요구함이요, 살인모해(殺人謀害)하는 저주가 아니오니 상공은 방심하소서. 그러나 상공 면상에 흑기(黑氣) 어리어 집을 떠날 수액(數厄)이 있으니 조심하소서.”

한림이 칭사(稱謝)하고 도인이 돌아간 후 가만히 생각하니, “연전에 저주한 일이 다 사씨가 꾸민 짓이라 하였더니, 이제 사씨 나간 지 오래고, 나 있는 방을 고친지 여러 달 아니 되었거늘 또 이런 흉한 일이 있으니 분명 가내에 악인이 있도다. 이러한즉 사씨 어찌 원통치 아니하리오.”

하고 요사한 물건을 다 없이한 후 정신이 들어 옛날 총명이 돌아오더라. 전일을 상상하여 보매 뉘우치는 마음이 점점 더하고 꿈이 깬 듯한데, 두 부인이 성도에서 서간을 부쳐 왔더라. 한림이 개봉한즉, 사씨의 출화(黜禍)당함을 모르고 쓴 것이라, 말씀이 명쾌하고 거듭 사씨를 부탁하였더라.

한림이 두렵고 죄스러워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생각하매

자기가 피에 빠져 조강(糟糠)의 의(義)를 저버린듯한지라, 심사가 편치 못하여 교녀와 정이 소원해지더라. 교녀가 크게 두려워 동청더러 사기(事機)를 이른다.

동청이,

“독약을 음식에 타 한림을 먹이라.”

교녀가,

“만일 먹지 아니하고 벨어버려 일이 잘못되면 큰일이 날 것이니 다른 계교를 생각하라.”

동청이 모해하기를 생각하다가 하루는 서헌에 들어가니 마침 한림이 친구를 심방하러 나아갔더라. 동청이 서안을 상고하니 한림이 시세를 탄식하여 지은 글이 있는데, 승상 엄승을 논박하되, 오국학민(誤國虐民)한다 하였더라. 동청이 좋아서 교녀더러 일렀다.

“이제 유연수 없이할 방도를 얻었으니 쾌하도다.”

교녀가,

“어찌 이름이뇨?”

““천자가 도사와 단약(丹藥)을 믿으시고, 엄 승상이 그 일을 힘쓰거늘, 이제 유 한림이 천자를 비방하고, 엄 승상을 폄하여 글을 지었으니, 이 글을 엄 승상께 드리면 승상이 노하여 천자께 아뢰어 필연 귀양을 면치 못하리니 어찌 묘하고 쾌하지 아니하리오.”

교녀가 좋아서,

“남의 손을 빌어 저를 없이하면 어찌 쾌한 일이 아니리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 한림은 두(杜) 부인 모자를 집으로 초청했다. 큰 잔치를 열어 전별하려는 것이었다. 두 부인은 그 자리에 사씨가 없는 것을 보고는 온종일 언짢은 표정을 짓고 있다가 마침내 한림에게 말했다.

“오라버니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로 조카님을 의지해 지내왔네. 이제 만 리 먼 작별을 앞두고 내가 한 마디 부탁을 하려고 하네.”

유 한림은 무릎을 꿇고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사씨 문제라네. 사씨는 오라버니께서 아끼던 사람으로 성품이 본래 근실하고 신중하네. 그에게 죄과가 없으리라는 것은 백 번이라도 보장할 수 있지. 내가 떠난 후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절대 그대로 믿지 말게. 설혹 그의 잘못을 눈으로 직접 보았더라도 반드시 내게 편지를 보내 의논해 주게. 부디 가볍게 처리하지 말게나.”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두 부인이 이어서 시비를 돌아보며 물었다.

“부인은 어디 계시냐? 내 직접 가 보아야겠다.”

시비는 두 부인을 모시고 사씨가 있는 곳으로 갔다. 사씨는 누추한 방에 거적을 깔고 있어 보기도 쳐참했다. 나무 비녀와 베치마에 다복썩처럼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는데, 몸은 초췌하여 의복도 이기지 못할 듯했다.

사씨는 두 부인을 맞아 절을 올린 후 말했다.

“숙숙\*께서 영귀하여 멀리 떠나시지요. 그러나 돌아보건대 저는 상복을 입은 사람이고 또한 씻을 수 없는 죄명을 지고 있어, 감히 뜰에 나가 경하 드리며 떠나시는 길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집에 오셨다는 말을 들었지만 또한 나가서 뵈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생에서는 다시 존안을 대할 날이 없을 듯하여 무궁한 한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부인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왕림하셨습니다.”

“오라버니께서 임종하실 때 한림을 내게 부탁하셨지.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네. 내가 조카를 잘 인도하지 못한 탓에, 자네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어. 모두 내 허물일세. 그런데 내가 몇 해 전에 자네에게 했던 말을 혹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가?”

사씨는 다시 절을 하고 대답했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찌 잊을 날이 있겠습니까? 제가 눈은 있으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찌 감히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중략 부분의 줄거리] 두 부인이 떠난 뒤, 사씨는 또다시 교씨의 흉계에 빠진다. 교씨는 울면서 사씨를 모함한다.

마침내 한림은 화를 벌컥 냈다.

“투부\*가 처음에 저주를 했을 때, 나는 부부의 정의를 생각하여 차마 적발할 수가 없었지. 그 후 신성현에서 더러운 행실을 한 단서가 이미 드러났을 때에도 죄를 묻지 않았어. 지금 또 이렇게 세상에 보기 드문 흉악한 짓을 하다니……. 이 사람을 집안에 그대로 둔다면 조상께서 제사를 흠향하지 않으시고, 자손도 완전히 끊어질 거야.”

한림은 교씨를 위로하였다.

“오늘은 이미 저물었네. 날이 밝으면 일가들을 모아 사당에 고한 후에 투부를 내칠 것이네. 그리고 자네를 부인으로 삼을 것이야. 쓸데없이 슬퍼하지 말게. 꽃 같은 얼굴만 상하겠네.”

교씨는 눈물을 거두며 대답했다.

“그같이 조치하시다니……. 이제 첩의 원한이 거의 풀렸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자리를 첩이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한림은 즉시 일가들에게 통지하여 아침에 모두 사당 아래로 모이게 했다.

아아! 유 소사는 지하에서 일어날 수 없고 두 부인도 만 리나 멀리 떠났으니, 누가 한림의 뜻을 돌릴 수 있겠는가?

여러 시비들이 달려가 사씨에게 그 전말을 고하고 통곡하였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숙숙: 두 부인의 아들을 가리킴.

\* 투부: 질투심이 많은 여자. 사씨를 가리킴.

[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비가 사 씨를 계단 아래 이끌고 와 사당 앞에서 사배토록 했다. 사 씨가 하직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서니 모인 친지들이 문밖에서 작별했다. 모두 눈물을 흘리며,

“부인께서는 귀체保重하세요. 다른 날 서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할 뿐이었다.

사 씨가 감사해하며 말했다.

“죄인을 위해 멀리까지 나와 송별해 주시니 감격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 다시 만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인아를 잘 보살펴 주시지만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유모가 인아를 안고 통곡하니, 사 씨가 인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행여라도 내 생각은 말고 새어머니를 잘 섬겨라. 모르겠구나, 언제 너와 다시 만날까?”

또 탄식하며 말했다.

“둥지가 기울었는데 알이 온전할 수는 없는 법이니 어찌 네가 여기 머물기를 바랄까? 나의 죄악이 매우 무거워 너에게까지 화가 미쳤구나. 그저 바라노니, 다음 생에 다시 모자가 되어 이번 생에 못다 한 인연을 잇자구나.”

흐르는 눈물이 인아의 머리에 방울져 떨어졌다. 사 씨가 갑자기 눈물을 거두고 말했다.

“소사\*께서 돌아가실 때 내가 죽지 못했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따르지 못했는데 어찌 강보에 싸인 어린아이에 연연하겠는가!”

인아를 건네주고는 가마를 타고 떠났다. 인아가 크게 울부짖었다.

“어머님을 따라갈 테야.”

사 씨가 가마에서 다시 인아를 안아 젖을 먹이며 말했다.

“내 마땅히 내일이면 올 것이니 잘 있거라, 잘 있어.”

다시 유모에게 건네고 마침내 이별하고 떠났다.

사 씨는 흰 베로 얼굴을 가렸다. 오직 두 명의 여종만 뒤따랐으니, 친정에서 데려온 유모와 차환이었다.

사 씨가 문을 나선 뒤 시비들이 교 씨를 옹위해 사당에 오르게 했다. 구슬과 비취로 장식한 관을 쓰고 고운 무늬를 그린 치마를 이끄니 꽤욱 소리가 낭랑하게 울렸다. 위외가 매우 엄숙하고 광채가 밝게 빛나 마치 신선을 바라보는 듯했다. 예를 마치고 여러 노비로부터 인사를 받았다. 노비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백세를 외쳤다. 교 씨가 명을 내렸다.

“이제 내가 안살림을 맡았으니 전과는 크게 다를 것이다. 너희는 모름지기 마음을 다해 따르고 화목하게 지내 삼가 죄를 짓지 말도록 하여라.”

“삼가 명을 받들겠습니다.”

몇 명의 늙은 하인이 아꼈다.

“사 씨는 여러 해 동안 이 집 안주인이었습니다. 지금 비록 죄를 지어 쫓겨나나 저희가 인정상 마땅히 배송해야겠기에 감히 청하옵니다.”

교 씨가 말했다.

“이는 두터운 정이니 어찌 만류할 수 있겠느냐?”

여러 시비들이 일제히 큰길로 따라나서니 통곡 소리에 땅이 진동했다. 사 씨가 가마를 멈추고 차환에게 말을 전했다.

“죄인을 멀리까지 배웅해 주니 고맙고 고맙네. 새 부인을 힘써 섬기되, 옛 사람도 잊지는 말아 주게.”

원근의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중략)

가마꾼이 신성으로 향하려는데 사 씨가 차환에게 말했다.

“바로 소사의 묘로 가도록 해라.”

마침내 가던 길을 바꾸었다. 조양문을 지나 곧바로 묘에 이르러 몇 칸 되지 않는 초가집을 얻어 머물렀다. 사방은 황량한 산이고 마을은 쓸쓸하여 아침저녁으로 오직 원숭이의 휘파람 소리와 새들의 울음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사 씨 집안 소공자가 이 기별을 듣고 급히 말을 달려와 통곡했다.

“여인이 시집에서 받아 주지 않으면 으레 친정으로 돌아오기에, 형제가 서로 의지할 수 있게 되어 불행 중 다행이라 여겼거늘, 누님이 이 빈산에 온 것은 대체 무슨 뜻입니까?”

“내 어찌 형제를 생각하지 않겠으며, 또 어머님의 혼백을 모시고 싶지 않겠니? 다만 생각건대 일단 친정으로 돌아가면 유씨 집안과는 영원한 이별이 될 것이야. 또 나는 본디 털끝만큼의 죄악도 없고, 한림 또한 현명한 군자니 비록 한때의 모함에 미혹될지라도 뒷날 뉘우치는 마음이 어찌 없겠니? 설혹 한림이 나를 영원히 버린다 할지라도, 일찍이 돌아가신 소사께 후대\*를 받았으니 소사의 묘 아래 늙어 죽는 것이 나의 바람이야. 아우는 이상하게 생각지 마라.”

사 공자는 다시 부탁해 봐야 소용없을 줄 알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 사내종 한 명과 시비 한 명을 보냈다. 사 씨가 말했다.

“우리 집에 본디 하인이 별로 없는데, 여기에 하인 둘을 뉘 봐야 어디에 쓰겠는가?”

늙은 사내종만 머물러 문을 지키게 하고, 시비는 즉시 돌려보냈다. 이 땅은 유씨 종족이 모이는 곳으로 하인들이 거주했다. 사 씨가 온 것을 보고 문안하며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가진 것이 있고 없고 간에 서로 도우니 족히 의지가 되었다. 사 씨는 길쌈에 뛰어나 품을 팔아 옷도 만들고 옷감도 짜며 생활했다. 게다가 몸에 지니고 온 약간의 장신구가 있어서 진주와 패물 등을 내다 팔아 부족한 데 보태니 고초가 심하기는 해도 세월을 보낼 수 있었다.

이 무렵, 교 씨는 사 씨가 신성의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유씨 집안의 묘로 갔다는 말을 듣고, ‘이는 분명 쫓겨난 부인임을 자처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생각하여, 한림에게 말했다.

“사 씨는 더러운 행실로 조상들께 죄를 짓고서 어찌 감히 유씨 집안의 묘 아래 머무나요?”

“이미 쫓겨난 뒤니 행인과 같아서 동서남북 어디든 마음대로

머물 수 있소. 게다가 그 땅은 비단 유씨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거처하는 곳이니 어찌 금할 수 있겠소?” 교 씨가 기뻐하지 않았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소사(少師): 태자를 도와서 바르게 이끄는 벼슬을 뜻하며, 유한림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임.

\* 후대(厚待): 아주 잘 대접함.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유 한림은 사 씨와 결혼하나 자식이 없었고 씨를 첩으로 맞아들인다. 아들을 낳은 교 씨는 사 씨를 참소하고, 유 한림은 사 씨를 폐출시키고 교 씨를 정실로 삼는다.

사 부인이 두 부인의 상경함을 듣고 기뻐하여 의심치 아니하고 갈 뜻으로 답장하여 보내고, 이날 밤에 혼자 앉아 생각하되,

“이곳이 비록 산골이나 선산을 바라고 위로하더니 이제 떠나게 되니 자못 처량토다.”

하고, 베개 위에 의지하여 잠간 졸더니 비몽사몽간에 문득 한 사람이 이르되,

“노야와 부인이 청하시나이다.”

사 씨가 눈을 들어 보니 소사의 부리던 비자라. 즉시 그 사람을 따라 한 곳에 이르니, 시비 수인이 나와 인도하여 침전에 이르니 유 소사 최 부인과 함께 앉았는데 용모가 완전히 전일과 같은지라. 사 씨 크게 기뻐하여 절하고 뵈오며 눈물이 비 오듯 흐르니 소사 슬하에 앉히고 위로하여 가로되,

“아희 참언을 듣고 현부를 곤케 하니 내 마음이 편치 못하도다. 그러나 오늘 두 부인의 편지가 참이 아니니 현부는 자세히 보면 알리라.”

최 부인이 사 부인을 불러 옆에 앉히고 어루만져 가로되,  
“내 일찍 세상을 이별하매 현부를 다시 보지 못하였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오. 네 다시 눈을 들어 나를 보라. 유명이 비록 길이 다르나 현부 아희로 더불어 사당에 오르매, 현부의 드린 술잔을 흠향치 아닌 적이 없으니 이제 교녀로 제사를 받들때 내 어이 흠향하리오. 슬프다, 현부 집을 떠난 후 이곳에 와 있으니 우리 종이 의탁하였거니와 이제 그대 멀리하게 되니 어찌 슬프다 아니하리오.”

사 씨 울며 가로되,  
“비록 두 부인이 부르시나 어이 떠나오리까.”

소사 가로되,  
“이를 말함이 아니라 편지가 거짓 것이며, 그대 또 오래 여기에 있지 못할 것이요, 아직도 칠 년 재액이 남았으니 마땅히 남방으로 피란할지어다. 후회치 말고 급히 이곳을 떠나 남방으로 수로 오천 리를 향하여 가라.”

사 씨 울며 가로되,  
“혈혈한 여자의 몸으로 어찌 칠 년을 유리하리이꼬. 전두 길흉을 알고져 하나이다.”

소사 가로되,  
“이는 천수니 어찌하리오. 다만 할 말이 있으니 이후 육 년 사월 십 오일에 배를 백빈주에 매었다 급한 사람을 구하라. 이것은 명심 불망할지어다. 또 그대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할지니 빨리 돌아가라.”

사 씨 가로되,  
“이제 존안을 떠나오니 어느 날 다시 뵈오리이까.”

인하야 읍하고 느껴 우니 유모와 차환이 깨우거늘, 사 씨

놀라 깨달으니 한 꿈이라. 가장 신기하여 몽사를 말하니 시비 또한 신기히 여기는지라. 사 부인이 존구의 말씀을 깨달아 두 부인의 편지를 다시금 보고 가로되,

“두 추관의 아버지 이름이 강 자인고로 두 부인이 평일 말할 때나 편지 쓸 때나 일절 강 자를 쓰지 아니하더니 이 편지에 강 자를 썼으니 이는 반드시 위조가 분명하도다. 아지 못게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모해하는고.”

(중략)

이때 한림이 묘혜의 노래를 듣고 아무 말인 줄도 알지 못하고 따라서 선중에 들어가니, 한 부인이 소복담장으로 앉았다가 한림을 맞아 슬피 울거늘, 한림이 보니 이 곧 사 부인이라. 슬프고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서로 붙들고 일장통곡하다가 한림이 가로되,

“이에서 상봉함은 천만 뜻밖이라.”

하고 한훤\*을 편 후 길이 탄식하여 가로되,

“내 낮을 들고 부인을 보니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할지라 무슨 말을 하리오. 그러나 부인은 정신을 진정하여 연수의 불명함을 들으소서.”

인하야 부인이 집을 떠난 후 요인의 전후 일을 다 이르며, 교녀 십량으로 더불어 방자하던 말이며 또 설매가 옥지환을 도적하여 동청을 주매 동청이 냉진을 보내어 속여 이르던 말을 하니, 사 씨 눈물을 흘려 가로되,

“상공이 이 말씀을 아니 하셨으면 첩이 구천에 돌아간들 어찌 눈을 감으리까.”

한림이 장주를 죽이고 설매로 하여금 춘방에게 미루던 말이며 동청이 엄승에게 참소하여 자기를 사지에 보낸 말과 교녀 가증 보물을 다 가지고 동청을 따라간 말을 이르니 사 씨 잠자코 말이 없는지라. 한림이 또 탄식하여 가로되,

“다른 것은 그만이지만, 인아는 부인을 잃고 또 아버지를 잃어 강물 속의 무주고혼이 된 듯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오.”

하고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니, 사 씨 이 말을 듣고 애고 한마디 소리에 곧 기절하는지라. 한림이 구하여 다시 가로되,

“설매의 말을 들으니 제 차마 못 죽이고 물가 수풀에 던졌다 하니, 혹시 하늘이 살피사 다행히 살았으면 하나이다.”

사 씨 울며 가로되,

“설매의 말을 듣고 어찌 믿으며, 설사 수풀에 두었더라도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이렇듯 문답하여 슬픔을 이기지 못하다가 한림이 또 가로되,  
“회사정 필적을 보니 부인이 물에 빠짐이 분명하므로 노방 역려에서 제문을 짓다가 동청의 보낸 무리를 만나 꼭 죽게 되었더니, 뜻밖에 부인의 구함을 얻어 살아났으니 부인은 어디로부터 이에 왔으며 어찌 배를 저어 나를 구하셨느냐.”

사 씨 가로되,

“첩이 선산 묘하에 있을 때에 도적이 위조 편지를 하여 위급한 화를 당하게 되었는데, 구고 현몽하사 모년 모월 모일에 배를 백빈주에 매어 급한 사람을 구하라 하시던 말씀을 일일이 전하며, 다행히 저 스님을 만나 여태껏 의지하였으며,

오늘 저 스님의 덕택으로 상공을 구하였으며, 회사정의 글은  
죽으려 할 때 썼으나 저 스님의 구함을 입어 잔명을 보전하  
였거니와, 이에서 상공을 만날 줄이야 어찌 뜻하였으리오.”

한림이 탄식하여 가로되,

“우리 부부는 묘혜 스님의 구한 바니 은혜 태산 같도다.”

하고, 묘혜를 향하여 절하고 사례하여 가로되,

“스님이 본대 우화암에 있던 묘혜 선사가 아닌가. 당초에  
우리 부부의 결혼을 담당하고 또 우리 부부를 죽을 땅에서  
구하니, 하늘이 우리 부부를 위하여 스님을 내셨도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환환: 날씨의 춡고 더움을 말하는 인사.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왕비가 웃으며 말했다.

“부인이 이곳에 오긴 오겠지만 아직 때가 멀었소. 남해 도인이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의탁하게 될 것이요. 이 또한 하늘의 뜻이니라.”

사 씨가 여쭙었다.

“남해라면 바다 끝으로 알고 있사옵니다. 첩에게는 탈 것이 없고 돈도 없는데 어찌 갈 수 있겠나이까?”

왕비가 말했다.

“조만간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조금도 염려 마라.”

이윽고 좌우에 앉아 있는 부인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위국 부인 장강\*, 한나라의 반첩여\* 등이 있었다. 사 씨가 다소곳이 일어나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다.

“뜻밖에도 모든 부인님의 얼굴을 오늘 뵈게 되니 크나큰 영광입니다.”

드디어 하직을 하고 여동의 인도를 받아 내려오는데, 걷었던 주름을 내리는 소리가 요란하였다. 이 소리에 놀라 몸을 일으키니 유모와 시비가 부인이 깨신다 하고 부르거늘 사 씨가 일어나 앉으니 이미 날이 저물었다. 멍한 정신이 한참 만에야 진정되었다. 입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났고 왕비께서 하시던 말씀이 뚜렷했다. 유모에게 물었다.

“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

유모와 시비가 대답했다.

“부인께서 기절하는 바람에 소인들이 간호하여 이제야 깨어나셨는데 어디를 가셨단 말입니까?”

사 씨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대나무 수풀을 가리키며 말했다.

“분명히 저 길로 갔다 왔으니 어찌 꿈이라 하리오. 믿지 못하겠다면 나를 따라오라.”

그러고는 길을 찾아 대나무 수풀 뒤쪽으로 가니 사당이 하나 있었다. 현판이 걸려 있는데 황릉묘\*라고 쓰여 있었다. 분명 아황과 여영, 두 왕비의 묘로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사당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두 왕비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이에 사 씨가 향을 피우고 절하며 말했다.

“첩이 왕비의 가르치심을 입어 훗날 좋은 시절을 만나서 영화를 누리게 된다면 어찌 그 은혜를 잊으리까?”

분향을 마친 후 앉아서 신세를 생각하니 슬픔이 밀려왔다. 시비를 시켜 묘지기 집에 가서 밥을 구해 와서는 세 사람이 나누어 먹었다. 이윽고 사 씨가 말했다.

“의지할 곳이 없으니 신령이 나를 놀리시는구나.”

앞길이 막막하여 어쩔 줄 모르는 중 벌써 달이 밝았다. 세 사람이 방황하고 있는데 묘문으로 두 사람이 들어와 물었다.

“어려움을 만나 물에 빠지려 하시는 부인이 아니옵니까?”

사 씨가 눈을 들어 자세히 보니 한 명은 여승이고 다른 한 명은 여동이였다. 크게 놀라며 말했다.

“어찌 우리를 아는가?”

여승이 합장하고 말했다.

“우리는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인데 조금 전 꿈결에 관음보살께서 어진 여자가 화를 만나 날이 저물어 갈 곳을 몰라 방황하니 급히 황릉묘로 가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배를 저어 와서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략)

한편 한림학사 유연수는 유배지에 도착하니 바람이 거세고 인심이 사나워 갖은 고초를 겪게 되었다. 외로운 가운데 이러한 고생을 하니 예전의 총명함이 점점 돌아와 뉘우치며 말했다.

“사 씨가 동청을 꺼렸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말이 옳도다. 어진 아내를 의심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대하리오.”

밤낮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탄식하니 병에 걸리고 말았다. 이곳에는 마땅한 의약이 없었다. 병세는 날로 심해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하루는 흰 옷 입은 노파가 병을 들고 와서 말했다.

“상공의 병이 위독하니 이 물을 먹으면 좋아지리라.”

한림이 물었다.

“그대는 누구인데 유배당한 사람의 병을 구하시오?”

노파가 말했다.

“나는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고는 병을 뜰 가운데 놓고 사라졌다. 한림이 놀라 일어나니 꿈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다음 날 아침 하인이 뜰을 청소하다가 들어와 고했다.

“뜰에서 물이 솟아나옵니다.”

한림이 이상하게 여겨 창을 열고 보니 꿈에 노파가 병을 놓았던 자리였다. 물을 한 그릇 떠오라고 해서 마시니 맛이 달고 상쾌한 것이 마치 단 이슬을 먹은 것 같았다. 원래 행주는 수질이 좋지 않은 곳이다. 한림의 병도 그렇게 좋지 않은 물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그런데 이 물을 먹은 즉시 병세가 사라지고 예전의 얼굴과 기력을 회복하였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이후로도 그 샘은 마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마셨다. 이로 인해 물로 인한 병이 없어지자 사람들이 그 샘을 학사정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전해진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장강: 춘추 전국 시대 위나라 장공의 아내.

\* 반첩여: 한나라 성제의 후궁.

\* 황릉묘: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사당.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적에 유 소사 두 부인과 더불어 묘혜를 기다리더니, 묘혜 돌아와 웃으며 죽자를 드리거늘, 유 소사 물어 가로되,

“사 소저의 재주와 용모가 과연 어떠하더뇨?”

묘혜 답하여 가로되,

“죽자 가운데 사람과 같더이다.”

하고, 더하여 사 급사 부인과 소저의 문답을 자세히 고하니, 공이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사가의 여자 그 재주와 덕행이 과연 범인이 아니로다.”

하고 죽자를 걸고 보니 필법이 정묘하여 한 곳도 구차함이 없고 온화하고 유순한 덕행이 글씨에 나타나니 유 소사와 두 부인이 칭찬함을 마지아니하고 글을 보매 그 글에 하였으되,

‘관음은 옛적 성인이라. 그 덕행이 주 나라 태임·태사\*와 같도다. 관저와 갈담\*이 부인의 할 일인즉 외로이 공산에 있음은 본의가 아니라. 고요와 직설\*은 세상을 돕고 백이와 숙제\*는 주려 죽었으니, 도는 같지만 처지가 다름이라. 화상을 보건대 흰 옷을 입고 아이를 안았도다. 그림을 인하여 그 위인을 대강 알리로다. 옛날 지조 높은 부인네는 머리털을 끊고 목숨을 버려 세상과 인연을 끊고 오직 의리를 취하였거늘, 세속 사람들은 부처님 글을 잘 알지 못하고 한갓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니 인륜에 해로움이 있도다. 슬프다, 관음보살은 어찌하여 여기에 계신고? 외로운 섬, 대 수풀에 바다 물결이 만 리로다. 극진한 공부, 윤회에 벗어나고 어진 덕이 세상에 비치니 억만창생 뉘 아니 공경하리오? 만고에 그 이름이 불생불멸하니 거룩한 그 덕을 붓으로 찬양키 어렵도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사 소저는 유 소사의 아들과 혼인 하나 모함을 받아 시집에서 쫓겨나 자결하려 하는 때에 한 여승을 만난다.

여승이 황망히 예하고 가로되,

“소승은 동정 군산사에 있더니, 아까 비몽사몽간에 관음이 현몽하사 어진 여자 환난을 만나 갈 바를 모르고 장차 물에 빠지려 하니 빨리 황룡묘로 가서 구원하라 하시매 급히 배를 저어 왔더니, 과연 부인을 만나매 부처님 영험하심이 신기하도소이다.”

사 씨 가로되,

“우리는 죽게 된 사람이러니, 스님의 구함을 만나매 실로 감격하나 스님의 암자 멀고 또 귀 암자에 폐가 될까 하나이다.”

여승이 가로되,

“출가한 사람은 본대 자비를 일삼나니 하물며 부처님의 지도하심이어늘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하고 붙들어 언덕에 내려 좌정한 후 여승이 여동과 더불어 배를 저어 타고 갈새, 일진순풍을 만나 순식간에 군산에 다다르매, 산이 동정호에 외로이 있으니 사편이 다 물이요, 여러

봉에 대 수풀이고 인적이 희소하더라.

여승이 배에서 내려 사 씨를 붙들어 길을 따라 나아갈새, 열 걸음에 한 번씩 쉬어 암자에 들어가니 암자 이름을 수월암이라 하였는데, 가장 깊숙하고 정결하여 인세 같지 아니하더라. 종일 고생하였으므로 잠이 들어 밤이 밝아 옴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승이 불당을 깨끗이 하고 향을 피우고 경쇠를 치며 부인을 깨워 예불하라 하거늘, 사 씨가 시비와 더불어 법당에 올라 분향하고 배례할새, 눈을 들어 살피고 문득 놀라며 눈물을 머금으니 부처는 다른 이가 아니라 16년 전에 자기가 찬을 지어서 썼던 백의(白衣) 관음화상이라. 여승이 괴이히 여겨 물어 가로되,

“부인이 어찌 부처의 화상을 보고 슬퍼하시나이까?”

사 씨 가로되,

“화상 위에 쓴 것이 내 아희 때에 지은 찬이니, 여기에 와 보매 자연 비회(悲懷)를 금치 못하리로소이다.”

여승이 크게 놀라 가로되,

“이 말씀 같을진대 부인이 신성현 사 급사 덕 소저가 아니십니까? 부인의 용모와 음성이 이목에 익은 줄을 이상히 여겼나이다. 소승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때 부인에게 글 받아온 우화암 묘혜로소이다. 소승이 유 소사의 명을 받자와 부인에게 관음찬을 받아 가매 소사 보시고 크게 기뻐하여 혼인을 정하시고 소승에게 상을 후하게 주시니, 그때 머물러 혼사를 보려 하다가 스승을 바빠 찾아야 하매 할 수 없이 산에 돌아와 스승을 따라 10년을 수도하였더니, 스승이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이곳에 와 외진 곳에 암자를 짓고 고요히 공부하며 불상을 뵈올 때마다 부인의 옥설 같은 용모를 생각하더니, 알지 못해라, 부인이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시니잇고?”

사 씨 눈물을 흘리고 전후곡절을 일일이 설화하니 묘혜 탄식하여 가로되,

“세상 일이 본대 이 같은 것이오니, 부인은 너무 슬퍼하지 마옵소서.”

부인이 불상을 다시 보니, 외로운 섬 가운데 앉아 기운이 생생하여 완연히 살아있는 듯하고, 찬의 의미가 자기의 유락함\*을 그렸는지라 사 씨 탄식하여 가로되,

“세상 일이 다 하늘이 정한 것이니 어찌 하리오!”

하고 이날부터 관음보살에게 분향하여 인아와 다시 만나지라 축원하더라.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태임·태사: 각각 중국의 문왕과 무왕의 어머니로 높은 덕을 지녔던 인물들.

\* 관저와 갈담: 후비의 덕을 노래한, 「시경」에 나오는 작품.

\* 고요와 직설: 순임금을 보좌했던 세 명의 신하. 고요와 직과 설.

\* 백이와 숙제: 굶어 죽으면서까지 절개를 지켰던 은(殷) 나라의 인물들.

\* 유락(流落)함: 정치 없이 떠돌.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자기 북쪽에서 오는 일행이 있었다. 말과 사람 모두 성대하게 치장하고 있었다. 붉은 막대에 푸른 기가 좌우를 둘러싸고 큰 소리로 길을 비키라며 사람들을 물러나게 했다. 한림이 대숲에 몸을 숨기고 눈을 들어 바라보니 곧 동청이었다.

크게 놀라 말했다.

“이 자가 어떻게 높은 벼슬에 이르렀지? 행색을 보니 분명 자사 아니면 태수다. 필시 엄승에게 붙어 저 벼슬을 얻었으리라.”

더욱 통분함을 이기지 못했다. 이어 길을 비키라는 큰 소리가 났고, 비단옷을 입은 시녀 십여 명이 칠보 수레를 옹위하며 천천히 왔다. 진주와 비취가 햇빛에 빛났고 사향 향내가 코를 찔렀다. 차림새가 앞의 행차보다 배나 더 성대했다. 한림이 숨을 죽이고 깊은 곳에 앉아 행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큰길로 나가 한 가게에 들러 점심을 먹었다. 건너편 집 쪽에서 어떤 여자가 먼저 가게에 들어왔다가 들락날락하며 한림을 뚫어지게 보았다. 이윽고 앞으로 나아가 절하고는 물었다.

“어찌 여기 오셨습니까?”

한림이 한참 바라보니 곧 설매였다. 놀라서 물었다.

“나는 사면을 입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여기에 왔느냐? 집안사람들은 모두 잘 지내느냐?”

설매가 눈물을 흘리며 아꼈다.

“집안일을 어찌 차마 말씀드리겠습니까? 상공께서는 저 앞 행차를 보고 누구라 생각하셨습니까?”

“동청이 어떤 벼슬을 하여 가더군. 이 이야기는 천천히 하고, 집 소식부터 빨리 말해 보아라. 부인과 두 아이는 모두 별일 없느냐?”

“뒤에 가던 부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시 동청의 처자겠지. 내가 어찌 알겠느냐?”

“동청의 안사람이 바로 교 씨입니다. 저도 그 행차를 따라 왔습니다. 어찌다 말에서 떨어져 이 가게에서 옷을 갈아 입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상공께서 여기를 지나셨습니다.”

한림이 놀라 눈을 크게 뜨고 오래도록 정신이 나간 듯 멍하게 있다가 곧 안정을 되찾고 물었다.

“세상에 어찌 이처럼 기이하고 이상한 일이 있을까? 곡절을 상세히 말해 보거라.”

“제가 위로는 하늘을 저버리고 아래로는 주인을 기만했으니 죄악이 산더미처럼 큼니다. 상공께서 만약 지난 잘못을 묻지 않으신다면 사실대로 아뢰겠습니다.”

“지난 일은 거론치 않을 것이니 자세히 말하도록 해라.”

설매가 머리를 조아리고 울며 말했다.

“사 부인에게서 비복들을 자식처럼 대해 주셨으나 저는 남매와 교 씨의 핏에 빠져 이러이러하게 옥가락지를 훔쳐냈고 저러저러하게 장주를 눌러 죽였습니다. 사 부인에게 쫓겨나는 화를 입혔으니 저의 죄는 만 번 죽더라도 오히려 가벼울 것입니다. 교 씨는 동청과 사사로이 통정했고, 저주한 일은 교 씨와 이 십량의 짓입니다. 저주하는 글은 동청이 쓴 것이고요. 상공께서

유배 가신 것 역시 동청이 교 씨와 함께 꾸민 짓입니다. 동청이 벼슬을 얻은 뒤 교 씨는 집 안의 재물을 모조리 쓸어 싣고 동청에게 갔으며, 인아 공자를 강물에 빠뜨려 죽게 했습니다. 첩이 비록 천하지만 일찍이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교 씨는 질투가 많고 잔혹하여 시비들이 만약 동청에게 가까이 가더라도 하면 번번이 온갖 형벌로 가혹하게 다스렸습니다. 제가 비록 생명을 보전하고 있지만 죽을 곳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중략)

임 씨가 이곳에 온 뒤로는 인아를 바깥채에 머물게 했기에 시비를 시켜 즉시 인아를 불러오게 했다. 인아가 유모를 보자 오래전에 서로 알던 사람처럼 서로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임 씨가 말했다.

“이 아이가 공자와 비슷한 곳이 있나요?”

“덩치는 비록 다르지만 골격은 우리 공자님과 아주 흡사해요. 공자님은 이마 위에 뼈가 튀어나와 상공께서 항상 ‘이 아이에게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독특한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이 아이의 이마 위에도 그 뼈가 있으니, 슬픈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참으로 기이합니다. 이 아이는 사실 저의 어머니 소생이 아닙니다. 모년 모일에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길렀는데 꿈이 기이했습니다. 이 아이의 모습에 닮은 곳이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아가 이 말을 듣고 말했다.

“이분은 분명 나의 유모입니다. 부인이 나를 데리고 떠날 때 유모를 불러서 집을 지키게 했지요. 유모가 차마 나를 놓을 수 없고, 나 또한 유모를 차마 놓을 수 없어 가는 길에 통곡하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찌 내가 유모를 모르겠습니까?”

유모가 즉시 껴안고 통곡했다.

“분명 인아 공자님이예요. 그렇지 않다면 서로 헤어지던 때의 일을 어찌 알겠어요?”

임 씨가 말했다.

“이 아이가 비록 부모님 성명은 몰랐지만, 예전에 큰 집에서 놀던 일은 오히려 기억하고 있었어요. 또 물가 갈대숲에서 장사치를 만나 배에 오른 일을 똑똑히 말했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매우 의심스러웠답니다.”

이때 집안사람들이 서로 말을 전하니 관아 전체가 들썩했다. 사 씨가 급히 임 씨의 방으로 와 인아를 보았다. 이미 그 아이가 인아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직접 보니 더욱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사 씨가 물었다.

“네가 나를 알아보겠느냐?”

인아가 한동안 우러러보다가 통곡하며 말했다.

“어머니께서 나가실 때 제가 유모의 품속에서 울고 있으니, 저를 안고 교자 안에서 젖을 먹이셨습니다. 그때의 일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어찌 모르겠습니까?”

사 씨가 즉시 인아를 안고 대성통곡했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각설 이 때 한림이 물가를 따라 점점 가며 탄식하되,  
“내 당초에 혼미하고 용렬(庸劣)하여 요사한 말을 귀담아  
들어 현인(賢人)을 방출하고, 위로 조상 제사를 받들지 못  
하고 아래로 처자의 성명을 보전치 못하고 또 신세 만 리에  
떠돌고 문호(門戶) 하루 아침에 몰락하니, 이 또한 만고의  
우부(愚夫)요 천지간 죄인이라. 부부의 정이 사씨에게 멀어  
지고 부자의 정이 인아(鱗兒)에게 단절하니 살아 무엇하리오.”

무수히 탄식하며 악주(岳州)에 이르러 강가에서 방황하며  
어부를 만나면 문득 사씨의 소식을 탐문하되 종적이 막연하고  
소식이 묘연하니 한림이 더욱 원통하고 울적함을 이기지 못  
하여 강촌에 가 곳곳에 묻더니 촌사람이 말하되,

“그 때 사씨 회사정(懷沙亭)으로 향한다 하더니.”

오래 듣다가 황망히 행하여 회사정 아래 이르니, 고목의 잎  
이 누렇게 떨어진 가운데 인적이 끊어지고 여러 짐승들이 좌  
오루 울되, 다만 눈앞에 보이는 바는 동정호(洞庭湖)\*구의산  
(九疑山)\*과 소상(瀟湘)\*의 저물 무렵의 구름이라.

한림이 방황하며 탄식하더니 흥연 벽 위의 글을 보니 크게  
췌었되, ‘모년 모월 모일에 사씨 정옥은 물에 빠져 죽노라.’하  
였거늘 한림이 크게 놀라 대성통곡 왈,

“무죄한 부인을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슬프다, 나의  
용렬함이며. 비록 후회한들 어찌 부인을 위로하리오. 내  
이미 황천에 가지 못하고 물에 몸을 던지지 못하니 이 죄를  
어찌 면하리오. 슬프고 슬프다. 보인이 무슨 죄로 만경창파  
(萬頃蒼波)에 죽었느냐?”

굽어보며 방성대곡(放聲大哭)하니 물결이 흐느끼고 천지가  
참담하더라. 이 때 해는 서산에 지고 안개는 동정호에 일어나니  
한림의 무한한 비회(悲懷)와 부인의 구천(九泉)에 사무치는  
애원(哀怨)이 전후(前後)가 똑같더라.

한림이 이에 원혼을 위로하고자 하여 강촌에 내려가 술상  
을 갖추고 등불 밑에 앉아 제문을 지으며 슬픈 감회 가슴에  
가득하여 피눈물 흘러 지필(遲筆)을 적시니 밤늦도록 지으나  
한 자도 이루지 못하고 앉아 탄식만 하더니, 문득 함성 소리  
진동하거늘 한림이 대경하여 창을 열고 보니, 한때 도적이  
창검을 가지고 들어오며 크게 소리하여 왈,

“유연수는 가지 말라.”

하거늘 한림이 크게 놀라 북쪽 창을 열고 나와 급히 도망  
하여 동서를 분별치 못하고 달아나니, 황급한 말을 어찌 다  
기록하리오. 겨우 백여 걸음 가다가 뒤를 보니 불빛이 점점  
가까워 오고 함성이 더욱 진동하니 한림이 당황하여 초목 사  
이로 살기를 바라 달리더니 의관이 다 부서지더라. 급히 가매  
수풀이 다하고 큰 강이 닥치니 몸에 날개 없으니 어찌 능히  
달아나리오. 적당(賊黨)이 외쳐 왈,

“유연수 비록 살고자 한, 팔랑개비라 하늘로 오르며 두더지라  
땅으로 들라?”

하며 급히 쫓아오거늘 한림이 하늘을 보고 탄식 왈,

“내 어찌 이 곳에서 죽을 줄을 알았으리오. 차라리 강계

던져 부인의 혼백을 의지하리라.”

하고 강을 향하고 달리더니, 흥연 바람결에 사람 소리 들리  
거늘 한림이 생각하되 이곳에 혹 어선인가 하고 황망히, 달리  
더니 달빛은 희미하고 적적한데 멀리 바라보니 조각배 하나  
떠 오고 푸른 옷을 입은 여동(女童)이 뱃머리에 의지하여 손  
으로 물결을 희롱하며 낭랑한 소리를 시를 읊고 있거늘,

(중략)

한림이 급히 불러 왈,

“여동은 인명을 구하라.”

하거늘 이 때 묘화와 부인이 배의 창문을 반쯤 열고 여동을  
명하여 가로되,

“급히 배를 대어 저 상공을 구하라.”

하니 여동이 급히 배를 저어 언덕에 대니 한림이 급히  
오르며 왈,

“뒤에 강도들이 급히 따라오니 바빠 행하여 수중의 어육(魚  
肉)을 면하게 하라.”

말을 마치지 못하여 조적 등이 이미 강가에 이르러 대성 왈,  
“여동은 바빠 배를 대라. 그 배 안의 행인이 살인한 도적이매  
계림 태수께서 우리를 보내어 급히 잡아 오라 하여 왔으니  
만일 놓치면 너희 등이 그 도적과 같이 죽을 죄를 당하리라.  
바빠 배를 대라.”

하니 한림이 비로소 동청(董靑)의 적당인 줄 알고 더욱  
두려워하여 여동에게 왈,

“나는 경성의 유한림이요, 저 놈들은 다 도적이니 급히 배를  
건너 화를 면하게 하라.”

하니 여동이 적당에게 이르되,

“너희 무리 지어 죄 없는 군자를 해코자 하니 우리 어찌  
군자를 구치 아니 하리오.”

모든 도적이 왈,

“감히 관청의 명령을 어기니 장차 어디로 가리오.”

여동이 크게 웃고 배의 창문을 의지하고 돛대를 쳐 노래  
하며 돛을 달아 배를 저어가니 적당이 하릴없이 돌아가더라.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악주, 동정호, 구의산, 소상: 중국의 지명.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편 교 씨는 냉진과 살다가 냉진이 도적을 사귀다가 괴수로 잡혀 죽자, 도망하여 낙양에 이르러 창기가 되어 이름을 칠링(七娘)이라 하였다.

낙양 사람이 교녀를 모를 이 없더니, 사 시랑 댁 사환이 낙양에 왔다가 칠랑의 유명함을 듣고 청루에 이르러 자세히 보니 과연 교 씨였다. 즉시 사부에 돌아와 유 시랑에게 소식을 전하니, 유 시랑이 크게 분하여 사 씨를 청하여 말하였다.

“내 교녀를 잡아 못할까 절통하더니, 이제 낙양 청루에서 창기 노릇을 한다 하니 내 이년을 잡아 벌하고자 하노라.”

사 씨 또한 교 씨에 대한 미움이 가지지 않았다. 부인이 인아를 만난 후 다시 시름이 없고 시랑이 또한 만사에 시름이 없어 백성을 잘 다스리니, 백성이 농업에 힘쓰고 학업을 부지런히 하여 모든 것이 무사하였다. 천자가 이를 듣고 예부 상서로 부르니 유상서가 이에 가족을 거느리고 올라갈 때, 서주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매파와 상의하였다.

매파가 교 씨를 보고,

“이제 예부 상서로 올라가는 상공이 낭자의 이름을 듣고 저를 불러 분부하시니, 상서는 거룩한 재상이요 또 시비의 전하는 말을 들으며 ‘부인은 신병으로 집을 다스리지 못한다’ 하니 낭자가 들어가면 어찌 부인과 다르겠는가.”

이에 교 씨 생각하기를,

“내 비록 의식의 부족함이 없으나 나이 점점 많아지니 어찌 종신 의탁할 곳을 생각하지 아니하리오.”

하고 교 씨를 경축 잔치에 청하니, 교 씨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기뻐하기만 하였다.

이때 유상서는 급히 서울에 이르러 천자를 뵈고 집에 돌아와 친척을 모으고 축하할 때, 사 씨와 임 씨를 불러 두 부인에게 뵈오라 하였다.

“오늘 이 즐거운 잔치에 여흥이 없으면 심심할까 합니다. 노상에서 명창(名唱)을 얻어 왔으니 한번 구경하십시오.”

하고, 좌우를 명하여 교칠랑을 부르라 하니, 이때 교 씨가 기다리다가 오라는 명령을 듣고 집 안에 들어갈 때, 교 씨가 크게 놀라 말하였다.

“이 집이 유 한림 댁인데 어찌 이리 오는가?”

시비가 말하였다.

“유 한림이 귀양 가시고 우리 상공이 들어 계십니다.”

교 씨가 놀람을 진정하고,

“내 이 집이 인연이 있도다. 이번에도 마땅히 백자당에 거처 하리라.”

하더니 시비가 교 씨를 이끌어,

“상공과 부인을 뵈오라.”

하니, 교 씨가 눈을 들어서 좌중을 보니 유연수 문중의 일족이었다. 벼락을 맞은 듯이 땅에 엎드려 슬피 울며 목숨을 살려 달라 애걸하나, 유상서가 교 씨의 비굴한 행동에 더욱 노하여 꾸짖었다.

“네 이년, 네 죄를 내가 알렸다?”

교 씨가 머리를 숙이고 애걸하여 말하였다.

“어찌 모르리카마는 죄를 용서하소서.”

“네 죄가 한둘이 아니니 들어 보아라. 처음에 부인이 너를 경계하여 음란한 풍류를 말함이 또한 좋은 뜻이었는데, 너는 도리어 모함하여 나를 속였으니 죄 하나요, 십랑과 함께 요괴한 방법으로 장부를 속였으니 죄 둘이요, 음흉한 종과 함께 뜻을 모았으니 죄 셋이요, 스스로 방자하고 부인에게 미루니 죄 넷이요, 동청과 정을 통하고 집안의 이름을 더럽혔으니 죄 다섯이요, 옥반지를 도적하여 냉진을 주어 부인을 모해하니 죄 여섯이요, 네 손으로 자식을 죽이고 큰 죄를 부인에게 미루니 죄 일곱이요, 간부와 동무하여 가장을 사지(死地)에 귀양 보내니 죄 여덟이요, 인아를 물에 넣어 죽게 하니 죄 아홉이요, 겨우 부지하여 살아오는 나를 죽이려 하니 죄 열이라. 천지간에 큰 죄를 짓고 오히려 살고자 하느냐?”

교 씨가 머리를 두드리고 울며 말하였다.

“이 모든 것이 첩의 죄이오나 장주를 해친 것은 실매의 일이요, 도적을 보냄과 엄승에게 고자질한 것은 동청의 일이옵니다.”

하고 사 씨를 향하여 울며,

“첩이 실로 부인을 저버렸거니와, 오직 부인은 대자대비 하신 덕으로 천첩의 목숨만 살려 주옵소서.”

사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네가 나를 해치려 한 것은 죽을죄가 아니나 상공에게 죄를 지었으니 내 어찌 구하리오?”

상서가 더욱 노하여 시동(侍童)에게 엄명하여 교 씨의 가슴을 칼로 찢어 헤치고 심장을 꺼내라 하니, 사 씨가 이를 말렸다.

“비록 죄 중하오나 상공을 모신지 오래니 죽여도 시체를 완전히 하소서.”

상서가 부인의 권고에 감동하여 동쪽 저잣거리에 잡아내려다가 만인의 보는 앞에 죄를 알리고 타살한 후에 동편 언덕에 잘 묻어 주었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